



2015
Let's go!

별을 쏘다 ☆

SUNGWOO HITECH MAGAZINE

2015. NEW YEAR vol.003

“함께해요, 2015년!”

수많은 날들 중에 하루이지만,
새해 새날이 주는 설렘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바다를 붉게 적시며 떠오른 해는
2015년의 서막을 알리며 힘차게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하루가 펼쳐질 테지요.
하루는 쌓여 또 하나의 추억을 이루겠지요.
여러분의 추억을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추억이 쌓여 세월이 되듯,
여러분의 시간 속에 성우하이텍이 함께합니다.

SUNGWOO HITECH MAGAZINE

2015. NEW YEAR vol. 003

별을 쏘다 ☆

발행일 | 2015년 1월 30일 (통권 제3호)

발행인 | 이명근

사보기자 | 강승태, 강승호, 강현지, 김유리, 김지영, 김태우, 김태훈,
남창식, 박노실, 박상정, 박은혜, 손재경, 신민환, 안상수,
이수승, 이승욱, 정영화, 제정민, 최수영, 최용혁 (가나다순)

발행처 | 성우하이텍 www.swhitech.com (인사노무팀 T. 070-7477-5022)

기획 및 디자인 | 미디어줌(T. 051-623-1906)

02 Photo Essay

함께해요, 2015년!

04 New Year's Address

Great Company 성우하이텍을 향해 Let's go!

07 Education

열정, 신입사원입니다!

10 Sheep Story

의기洋洋한 양띠들을 만나다!

14 현장 24시

품질 경쟁력의 첫 단추, 코일센타에 가다

16 World Wide

성우하이텍, 인도 첸나이에서 최고를 꿈꾸다



20 **History of Sungwoo Hitech**
공동운명체로서 지역사회와 함께해온 나눔의 기업문화

26 **Social Contribution**
1%의 나눔 활동, 그만큼 세상은 더 아름다워진다

28 **Interview**
행복을 위한 남다른 생각, '행복나눔125' 손 옥 회장

32 **Healing Travel**
겨울, 눈 덮인 제주의 매력에 빠지다

38 **Car Life**
자동차와 관련된 최초의 기록들

40 **Column**
내 일터의 '좋은 동료'는 내가 만든다!

42 **Fresh Start**
GOOD BYE 작심삼일

44 **2014 Sungwoo Top News**
갑오(甲午)년을 뜨겁게 달궜던 성우하이텍의 10대 뉴스는?

46 **For 2015**
2015, 성우하이텍 Let's go~!

47 **Issue & News**

50 **Sungwoo Campaign**
감사한데이(DAY)

Great Company

성우하이텍을 향해 Let's go!

성우하이텍 임직원 여러분!

2015년,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성우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저성장과 디플레이션, 가계부채와 환율전쟁, 그리고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라는 내외외환의 파고 속에서 내실 있는 성장과 미래지향적 체질개선의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찍이 밀레니엄 시대가 도래한 후 우리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현대기아자동차의 울타리 아래 해외 동반진출이라는 세계화를 이뤄냈습니다만, 이제는 글로벌 부품회사들과의 치열하고 냉혹한 생존경쟁을 통한 진정한 세계화를 이뤄내야 합니다.

지난 38년간 우리는 두 차례의 선제적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의 발판을 다져왔습니다. 사업 초기 자동차 차체부품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의 첫 구조개혁을 단행했고, 정관으로 본사 이전 후 사업확장에 따른 여파로 인해 2차 구조개혁을 진행하며 IMF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저가 입찰제도로 수주가 결정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10년 후를 예측할 수 없는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대한민국 차체업체 리더가 아닌 글로벌 최고의 차체업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고객지향의 무결점 감성품질을 기본으로 원가경쟁력 확보가 우선일 것이며, 전 구성원이 한마음으로 창의와 혁신에 소통을 더한 구조개혁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잠재역량을 갖춘 우리 구성원이 창의력을 발휘하려면 권위의식부터 버려야 합니다. 조직을 경직시키는 요소를 제거하여 피가 쫄게 흐르는 조직,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근무 자세를 갖춘 조직을 만듭시다.

또한 소수의 의견도 경청하여, 상하좌우가 허심탄회하게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합시다. 유연성을 갖춘 우리만의 구조혁신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극대화시켜 '언제나 새롭고 참신한 기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우가족 여러분!

올해가 성우하이텍이 세계 1등 차체부품회사를 향한 도전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열정을 쏟읍시다!

새해 성우가족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만복이 함께 하시고 성우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 이명준

Let's go towards the Great Company Sungwoo Hitech!

Fellow employees, let's all have a happy and prosperous new year together!

We are now facing global slowdown in the economy due to Low-growth, Deflation, Household-debt, exchange rate wars and the decrease in international oil prices. In these circumstances, we have to achieve fruitful growth and a future-oriented radical reform. After the millennium age arrived, we achieved globalization extending our business under the Hyundai-Kia Automotive Group. Now, we have to achieve real globalization through the struggle for co-existence with other global companies.

We have strengthened our footing for growth through pre-emptive structural reform over the last 38 years. To grow and expand our auto-component company, we performed structural reform and concentrated on the beginning stages of business. After relocating our headquarters to 'Jeonggwan', we could overcome IMF by performing a secondary structural reform. But we could face a crisis in ten years that no one could predict today. To be the best global auto-component company, we have to secure competitive costs with customer-oriented emotional quality first. Furthermore, all employees must try to add innovation and creativity to our structural reform process to give us a competitive edge. To use our creativity, we first have to discard our consciousness of authority. Let's get rid of the components which are stifling our group and blocking our pursuit of innovation and autonomy. In order to achieve this, we must create an atmosphere in which all employees can communicate with each other by listening and offering their own opinions. We have to maximize our problem solving ability through our structural innovations. It is only by achieving success in this way that we can consider ourselves truly an innovative company.

Let's do our best to be the No.1 global auto-component company in 2015. I wish continuous happiness to your families and increasing success to our business ventures. Thank you.

Chairman



열정, 신입사원입니다!



열정 충만한 성우하이텍 신입사원들의 위풍당당한 4박 5일 여정이 시작되었다.
성우하이텍을 이끌어갈 청춘들을 만나 이들이 만들어내는 소리를 담아 보았다.
신입사원들의 뜨거운 교육 현장을 소개한다.





1 '사랑합니다' 성우하이텍만의 인사법을 외치는 신입사원들 2 신입사원들의 결의와 다짐을 '약속보드'에 새기다.

‘들썩들썩’ 기대에 부푼 신입사원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신입사원 130명이 4박 5일간 2014년 공채사원 입문교육에 참가했다. 15일 첫째 날, 서창공장 6층 대강당에서 만나 성우하이텍 소개 영상을 본 뒤, 서창공장, 금형공장, 코일센타 등을 방문하는 현장 투어가 이어졌다. 추운 날씨였지만 기대에 찬 신입사원들의 모습이 돋보였다. 오후에는 경주에 위치한 더케이호텔로 이동해 3박 4일간 합숙에 들어갔다.

16일 둘째 날, ‘용기!’, ‘희망!’ 우렁찬 목소리가 강당을 채웠다. 신입사원들은 창조, 성취, 용기 등 다짐을 담은 단어로 팀 이름을 정해 총 16개 팀으로 나눠 구호를 외치며 팀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자리에 앉아서 강의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어느 때보다 활기찬 분위기였다. 팀별로 이뤄진 프로그램에서는 팀워크 형성은 물론, 커뮤니케이션의 방법, 효율적 시간 관리 등 사회 초년생에게 꼭 필요한 덕목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신입사원들 사이에는 지난 9월에 진행된 캠퍼스 리쿠르팅 ‘슈퍼페스’ 현장에서 만난 반가운 얼굴들도 보였다. 총 12명의 신입사원이 ‘슈퍼페스’ 제도를 통해 최종 합격까지 이어졌다.

잊지 못할 시간들

3박 4일의 합숙 기간 중 신입사원들이 최고였다고 꼽는 프로그램은 ‘도전 99초’와 ‘성우하이텍 비전보드’를 작성하는 시간이었다. ‘도전 99초’는 주어진 미션을 더 빠른 시간에 해내야 하는 팀별 대결이었다. 빠른 시간 내에 팀워크를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신입사원들의 협동심을 엿볼 수 있었다. ‘용기’팀에서 104초로 1등을 차지했다. ‘성우하이텍 비전보드’는 팀별로 성우하이텍의 10년 후 모습을 스토리 라인으로 구성하는 프로그램이다. 각자의 창의력을 한껏 발휘해 성우하이텍의 위풍당당한 비전을 그려보는 시간이었다. 신입사원들은 서로 몸을 부비고 땀도 흘리며 머리를 맞대어 성우하이텍과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기도 했다. 일과가 끝난 저녁 시간에는 교육 일정의 마지막 날인 19일에 부모님과 선배들 앞에서 선보일 퍼포먼스 공연을 준비했다. 댄스, 판소리, 뮤지컬, 드라마, 컵송으로 나눠 각자의 재능을 발휘했다. 늦은 시간까지 계속된 연습이지만 모두들 즐거운 마음으로 임했다.



또거웠던 교육의 마지막 무대

드디어 19일 오전, 신입사원들은 3박 4일간의 합숙을 마치고 서창공장으로 향했다. 신입사원들의 얼굴에는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합숙 기간 동안 매일 저녁 연습했던 퍼포먼스 무대에 서야 하기 때문이다. 오후 12시가 되자 부모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신입사원들은 늠름한 모습으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부모님과 기념촬영을 했다. 부모님들은 성우하이텍에서 준비한 식사를 마친 뒤 앞으로 자녀들이 근무할 회사 구석구석을 돌아보았다. 아침부터 서울에서 내려온 조홍영 신입사원의 부모님께서는 “실제로 와보니 너무 큰 회사라서 놀랐다. 타지 생활에 걱정이 되지만 잘할 거라고 믿는다, 아들!”이라며 흐뭇해 했다.

투어를 마친 뒤 다시 강당에 모여, 김태일 대표이사 사장의 환영사를 듣고 자녀들이 준비한 퍼포먼스 관람을 시작했다. 최준환 신입사원의 인사말과 함께 시작된 퍼포먼스 ‘성우! 퀴즈쇼’는 직장 생활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판소리, 댄스, 뮤지컬 등 다양한 퍼포먼스로 표현해 성우가족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신입사원들의 의지를 담았다. 주인공 역할인 ‘무기력 과장’은 강동률 사원이 맡았다. 강동률 사원은 능청스런 연기로 관객을 무대로 이끌었다. 퍼포먼스

속에는 드라마를 비롯해 영화 ‘Pitch perfect’의 유명한 장면인 ‘컵송’을 재연하고 뮤지컬 ‘레 미제라블’의 OST인 ‘Look down’을 개사해 함께 부르는 등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했다. 신입사원들의 다채로운 특기와 숨겨진 재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신입사원들이 한목소리로 부르는 합창이 이어졌다. 윤도현의 ‘나는 나비’를 성우만의 스타일로 개사를 해서 불렀다. ‘나는 꿈이 많은 성우인~’ 열정에 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동안 자신을 길러준 부모님과 취업 준비하며 마음고생 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진정한 성우가족이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했다. 이제는 성우인이라는 무한한 자긍심을 느끼며 신입사원 모두 새 출발을 다짐했다. 130명의 다짐과 결의는 ‘약속보드’에 새겼다. 내일의 성우하이텍을 이끌어갈 주인공들의 목소리가 담긴 ‘약속보드’는 김태일 대표이사 사장에게 전달되었다. 4박 5일간의 입문교육을 마친 2014년 공채 신입사원들은 3일간의 직무교육을 받은 뒤 소속팀에 배치된 후 각자 후견인의 지도 속에서 3개월의 인턴과정을 거치게 된다. 열정 가득한 신입사원들의 무한한 가능성과 찬란한 내일을 응원한다. 

3 박진영의 ‘honey’ 노래에 맞춰 춤추는 무대 위의 주인공들 4 카네이션을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기다리는 신입사원들





우리 가족은 모두 양띠!

저는 작년에 아내를 만나 결혼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도토리 (아기 태명)'가 생겼습니다. 아내도 저와 동갑이라 양띠인데 올해 태어날 우리 도토리도 양띠입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양띠이니 저와 양은 인연이 참 깊은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게 성우하이텍 덕분이죠. 아내를 만나게 된 것도 회사 동료의 소개팅이었습니다. 아내와 결혼도 하고, 아기도 생기니까 성우하이텍이 정말 고맙죠. 제2의 가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입사한 지 올해로 11년 차인데 처음에는 지금보다 직원이 적어서 더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처음부터 딱! 내 직장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 변함이 없습니다. 올해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도토리도 모두 건강하길 바랍니다.

지사 조립계 오민수 기장 | 1979년생



저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실습생 때부터 성우하이텍과 함께 했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대학을 선택할 때 저는 저를 알아주고 성장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후회는 없어요. 저는 성우하이텍이라는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합니다. 입사 때도 막내였지만 아직도 저는 막내입니다. 선배님들이 많이 귀여워 해주시고 챙겨주셔서 언제나 감사합니다. 특히 이동만, 장명중 기장님이 많이 신경 써주셨습니다. 지면을 통해 감사하던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조립반 직원 모두에게 올해는 사고 없이 지금처럼만 잘 지내면 좋겠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사 조립계 표정우 기사 | 1991년생

의기洋洋한 양띠들을 만나다!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한 해를 열두 지지(地支) 동물 이름으로 상징하여 띠를 정했다. 동양에만 있는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습관처럼 “올해는 무슨 띠야?”, “너는 무슨 띠야?”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올해는 열두 지지 중 여덟 번째 띠인 양띠해이다. 을미년(乙未年)을 맞이하면서 성우하이텍의 의기洋洋한 양띠들을 만나보았다.



내 인생의 전환점, 성우하이텍

성우하이텍에 온 지는 올해로 3년 차입니다. 입사 전에는 다른 자동차 부품회사에 다녔습니다. 전에 다녔던 회사와 비교했을 때 성우하이텍은 체계가 잘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불규칙했던 제 생활 패턴도 되 찾아갔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음도 안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성우하이텍은 복지혜택도 좋고, 대우도 대기업 못지않게 잘해줍니다. 그래서인지 가족들에게도 더욱 든든한 가정의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올해는 꼭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의 미래와 성우하이텍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공정QC 박준우 사원 | 1979년생

직장인으로서의 서툰 첫 걸음, 하지만 힘차게!

성우하이텍에 합격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았어요. 취업이 어렵다는 요즘에 성우하이텍이라는 좋은 회사에 한 번에 붙었으니 말이지요. 사실 준비를 많이 했어요. 처음부터 성우하이텍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학교 친구들과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함께 공부하고, 모의 면접도 진행해보고 했답니다. 성우하이텍이라는 행운이 저에게 온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직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고, 적응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자기계발과 영어 공부를 할 생각이에요. 꾸준한 노력으로 회사가 인정하는 인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예쁘게 봐주세요.

품질보증팀 강현지 사원 | 1991년생



일당백이 아닌 삼백을 이루자!

올해는 아무래도 많이 바쁠 것 같습니다. 금형공장을 이전하면서 규모가 커진 만큼 업무량도 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야 합니다. 저는 중간관리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도 잘 따라야 하고 그만큼 후배들의 입장도 잘 헤아려야 합니다.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답은 내는 조직'도 독서 리스트 중 하나였습니다. 때마침 사장님께서도 추천한 도서더라고요. 저녁에 인터넷 사용 시간을 줄여서 틈틈이 책 읽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책임감이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회사에서는 물론 집에서도 일당 삼백을 이루고자 합니다.

공법계획팀 김현균 과장 | 1979년생



성우하이텍은 저의 자부심입니다.

1994년 3월 2일이 입사 날이었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합니다. 신차 개발이라는 부분에서 매력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는 생각에 많이 들떠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성우하이텍은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곳입니다. 성우하이텍에 다니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키웠습니다. 회사에서 만난 인연들도 너무 소중한데요. 참 고마운 존재입니다. 저는 언제나 고마운 마음을 보답한다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성우하이텍은 저의 자부심입니다. 성우하이텍이 세계 일류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오늘도 힘차게 외쳐봅니다. Let's Go!

사상반 정송영 기장 | 1967년생





친구가 되어준 성우하이텍

성우하이텍에 입사와 동시에 홀로서기를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때도 기숙사 생활을 했지만, 혼자 사는 건 처음이었어요. 서툴기만 했던 저의 첫 홀로서기 도전에 성우하이텍은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었어요. 지금은 성우가족들이랑 업무적인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고민도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요즘에는 퇴근 후에 동료들과 맛집 탐방하러 다니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2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함께 했지만 한층 더 성숙해진 저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한답니다. 앞으로도 발전하는 저의 모습을 성우하이텍이 지켜봐 주면 좋겠습니다. 🌈

아산자재지원팀 김지선 사원 | 1991년생



새 출발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조금 늦은 나이에 입사를 했습니다. 34살이었죠. 지금은 자동화가 많이 되었지만 입사 당시만 해도 수작업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 많았죠. 서툰 저를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출발했지만, 마지막 일터라 생각하고 단단한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성우하이텍에 다니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족들과도 가까워졌습니다. 한 달에 두 번은 꼭 가족들과 영화도 보고, 일요일은 제가 요리도 합니다. 우리가 족과 저를 있게 해준 성우하이텍, 언제나 고맙습니다.

아산 조립1반 박종태 기장 | 1967년생

품질 경쟁력의 첫 단추, 코일센타에 가다

코일센타를 찾은 날, 마치 두루마리 휴지처럼 잘 말린 육중한 냉연코일을 싣고 트레일러가 분주히 돌아가고 있었다. 현장에서는 대형 프레스가 냉연코일을 규칙적으로 블랭킹했다. 찰랑찰랑~ 공장 안에 규칙적으로 가득 퍼지는 소리, 철판 절단을 위한 칼날이 지그재그로 켜켜이 움직이고 있었다.

성우하이텍 성장의 첨병, 코일센타

성우하이텍 코일센타는 현대제철 지정 냉연 코일대리점(SSC)으로, 현대제철에서 들어온 냉연코일을 수요처의 요구에 맞게 길이, 폭, 방향으로 절단하는 등 1차 가공하여 공급한다. 코일의 보관 및 운송 등 물류 서비스도 제공한다.

코일센타는 1997년 서창에서 작은 규모로 출발했다. 그 당시는 보관된 코일이 3~4천 톤 규모에 코일가공 라인도 3개에 불과했다. 이후 기장으로 옮겨 2011년 6월 준공식을 가지고 현재의 코일센타를 본격 가동했다. 코일센타에서는 코일을 폭 방향으로 자르는 슬리팅 라인(Slitting Line), 코일을 프레스 금형으로 찍어내는 블랭킹 라인(Blanking Line), 소형에서 대형까지 다양한 규격의 시트(Sheet) 절단 및 가공이 가능한 샤 라인(Shear Line) 등 코일가공 라인을 더 보강해 지금은 하루에 1천 톤 이상의 가공코일을 출하하고 있다. 코일센타에서 가공된 코일은 90% 이상이 성우하이텍에서 만드는 자동차 부품의 외판재로 사용된다. 뿐만 아니라 코일센타가 위치한 기장 및 서창을 포함한 경남 전역과 대구에 위치한 성우하이텍의 관계사 및 협력사는 물론 전자 기기와 선박 제조업체 등에서도 성우하이텍 코일센타의 코일을 사용한다.

강판이 들어가는 모든 완제품의 시초에는 코일센타가 있다. 코일센타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시작으로 최고의 완제품이 탄생할 수 있는 것이다. 결만 보아서는 다른 생산 공장과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코일센타야말로 성우하이텍 성장의 첨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숙련된 기술 노하우로 승부한다, 코일가공반

코일센타의 성장 저변에는 코일가공반이 자리하고 있다. 코일가공반은 손창환 반장의 진두지휘 아래 총 45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코일가공반의 반원들은 다른 현장보다 연령대는 낮지만 장기근속자가 많은 만큼 본인만의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들이 많다. 코일센타에서는 자동차 차체 중 도어 등의 외판재로 사용되는 코일을 주로 가공하기 때문에 작업의 난이도가 높아 정확하고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 블랭킹 라인의 경우 마스터 제품과 형상이 조금만 달라져도 불량 제품이 된다. 반면 코일의 상태에 따라, 설비의 세팅에 따라 제품의 형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정책임자의 노하우가 중요하다. 슬리팅 라인의 경우도 슬리터 조율을 잘못하면 불량률이 나기 일쑤이다. 따라서 공차 1mm까지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모든 공정을 마치고 나온 제품은 표면에 얼룩이나 스크래치가 단 한 개라도 없는지 꼼꼼하게 살핀 다음 코일 손상을 막기 위해 랩 등으로 포장해 출하시킨다. 또한 코일가공반의 반원들은 깨끗한 작업 현장이 곧 좋은 품질을 만드는 지름길이라 생각하며 늘 깨끗이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축적된 기술 노하우는 곧 품질 경쟁력으로 이어져 2009년 코일대리점 합동평가 최우수상, 2013

년 현대하이스코 우수판매점 수상, 2014년 전국 코일센타 평가 1등을 차지했다. 손창환 반장은 코일가공은 업무 특성상 스타트 라인에 있는 작업이고 프로의 마인드가 없으면 하지 못할 일이라고 말한다. 하나의 실수가 대량의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책임감과 열정은 기본이다. 코일가공반의 품격 높은 기술 노하우 쌓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여타의 코일센타가 보유한 기술보다 더 월등하다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존감은 끊임없이 성장하는 코일가공반의 기술 원동력이다. 

SUNGWOO HITECH

dreaming to be the best in Chennai, India

성우하이텍,

인도 첸나이에서 최고를 꿈꾸다

Laying down the root of growth in Chennai, India

It has been a long wish of Chennai people for a global car manufacturing units to be established in and around Chennai. The young aspirant dreamt to work in such car manufacturing and allied companies. The wish was realized when Hyundai-Kia Automotive Group set up its plant in Irrungattukottai SIPCOT, near Chennai. This paved the way for setting up HMI based Sungwoo Hitech in Chennai, India. Sungwoo Hitech India was started in the year 1997 and has been deeply rooted for about 18 yrs in the land of Chennai. It is one of the largest and the first body parts supplier company to be established in Chennai. It is one of the largest employers in Irrungattukottai SIPCOT, Chennai is employing more than 3000 employees up to date. Sungwoo Hitech India supplies body parts to customers such as Hyundai-Kia Automotive Group India, Renault Nissan, Ford and Ashok Leyland. Sungwoo India team plays hard on daily basis to achieve its targets and try to excel in satisfying the customers' expectations. Besides Challenging work, they also get many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formal and informal events which provide work life balance.

Employee motivation programs and activities of Sungwoo Hitech India

Our Company New year begins with a year-end communication meeting to be presided by our managing director. In the Communication meeting our MD discusses on the past year business performance and future improvement plans. This gives a fair idea to all of us where we are now and where to go in future. Sungwoo Hitech India Company provides various employees motivational programs and activities. Every year, we celebrate May Day as Family get together day. On the family day all employees' family members take a visit to the company. It is very nice to see employee family members and kids enjoying foods and fun arranged exclusively for them. Family members make a short tour in and around the company shop floor and the employees feel proud when their family members look at their work place and environment. Special games and fun activities are being conducted to the employee's kids and they enjoy a



india



SSP
SUNGWO STAMPING PVT LTD

WELCOME
TO
SSP

SSP OUR OBJECTIVE

2014Y: COMPANY INNOVATION
SUNGWO STAMPING PRIVATE LIMITED
CHALLENGE: NEW CHALLENGE !!
2014 Y: COMPANY INNOVATION
SUNGWO STAMPING PRIVATE LIMITED LIMITED INNOVATION
CHALLENGE: NEW CHALLENGE !!
2014 Y: COMPANY INNOVATION
SUNGWO STAMPING PRIVATE LIMITED LIMITED INNOVATION
CHALLENGE: NEW CHALLENGE !!
SSP

QUALITY INNOVATION TO KEEP BASIC QUALITY
COMPANY INNOVATION TO IMPROVE
CUSTOMER SATISFACTION
SUNGWO STAMPING PRIVATE LIMITED LIMITED INNOVATION
CHALLENGE: NEW CHALLENGE !!
2014 Y: COMPANY INNOVATION
SUNGWO STAMPING PRIVATE LIMITED LIMITED INNOVATION
CHALLENGE: NEW CHALLENGE !!
SSP

SSP

SUNGWO STAMPING PVT LTD CHENNAI UNIT
CHALLENGE: NEW CHALLENGE !!
2014 Y: COMPANY INNOVATION
SUNGWO STAMPING PRIVATE LIMITED LIMITED INNOVATION
CHALLENGE: NEW CHALLENGE !!
2014 Y: COMPANY INNOVATION
SUNGWO STAMPING PRIVATE LIMITED LIMITED INNOVATION
CHALLENGE: NEW CHALLENGE !!
SSP



1 2014년 8월 회사 야유회(One day picnic on every year August 15) 2 2014년 10월 설비(기계장치) 안전고사(Ayudha Pooja Celebration)
3 2014년 12월 회사 경영설명회(Year-end communication meeting)

lot. In Order to build harmonious and better relationship between staff and workers a one day picnic on every year August 15 is organized by our Company. Besides, the regular fun and frolic at the picnic, it provides an opportunity for relationship among us. Sungwoo Hitech India apart from the informed events also has variety of employees' recognition programs. Every month, we recognize employees who top in production, quality and 3C5S by giving out awards and certificates. This makes our employees proud of their best efforts. During Ayudha Pooja Celebration, a festival which is celebrated in India as a "thanks giving" to the tools and equipments used for our daily work, we recognize and motivate employees by best performing employees' awards and best attendance awards. The best performance and attendance award are provided department wise based on the Company's rule and criteria. A small cash award and a certificate signed by our MD are provided on this occasion.

Bond made by understanding the diversity of each other

Sungwoo Hitech India as multicultural recognition sends employees in batches to Korea Sungwoo Head quarters on special training visa every six months. During the training at Korea, employees learn the advanced technology and production methods. The employee skill levels are enhanced and also they get familiarization with multi cultural diversity.

Take the initiative in sharing warm hearts

The motto of Sungwoo Hitech, India is not only to be significant and global leader in stamping and assembly parts in India, but also to develop and contribute to the village community where the Company is located. The company significantly supports village school children by providing books and other materials annually. School sports events gifts are sponsored by our company. During, Diwali festival which is a local Indian festival, Sungwoo takes part in the happiness by distributing sweets to all the Village families.

This type of Sungwoo Involvement in village development enhances the image of Sungwoo among the people and help to have a cordial relationship. Sungwoo Hitech India can be proud to be part of Social development in the villages of India. All these activities and strategies of Sungwoo Hitech India make our employees and their family proud of the best global company in India.

인도 첸나이에 성장의 뿌리를 내리다

첸나이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가 첸나이에 설립되는 것이 오랜 소원이었다. 포부가 큰 젊은이들은 이러한 자동차 제조업체나 동종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꿈꿨다. 이 꿈은 현대기아자동차가 첸나이 근처 Irrungattukottai SIPCOT에 공장을 세우면서 이루어졌다. 이는 HMI 기반의 성우하이텍이 인



도 첸나이에 설립되는 데에도 초석이 되었다. 성우하이텍 인디아는 1997년 시작되어 약 18년간 첸나이 지역에 깊게 뿌리 내렸다. 성우하이텍은 첸나이에 설립된 가장 큰 차체부품회사 중 하나이다. 현재 3,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첸나이 Irrungattukottai SIPCOT의 최대 고용주이기도 하다. 성우하이텍 인디아는 현대기아자동차 인디아, 르노 닛산, 포드, 아속 레이랜드와 같은 고객사에 차체부품을 제공한다. 성우하이텍 인디아는 목표 달성과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매일 열심히 일하고 있다.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업무 외에도 직장 생활의 균형을 위한 공식, 비공식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인도법인만의 직원 동기부여 프로그램과 활동

성우하이텍 인디아의 새해는 법인이 주최하는 연말 소통회의로 시작된다. 소통회의에서 법인이 지난해의 사업성과 및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이는 우리가 현재 어떤 위치에 있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어떤 방향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준다. 성우하이텍 인디아는 다양한 직원 동기부여 프로그램과 활동을 제공한다. 매년 노동절을 가족들의 회사 방문일로 기념하고 있다. 가족의 날에 모든 직원의 가족들이 회사를 방문한다. 직원들의 가족들과 자녀들이 그들만을 위해 준비된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는 것은 좋은 일이다. 가족들은 회사 내부와 공장 주변의 현장을 둘러보는데, 직원들은 가족들이 자신

들이 일하는 직장과 근무 환경을 보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직원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특별한 게임과 즐거운 활동들이 준비되고, 자녀들은 이러한 활동을 매우 즐겁게 여긴다. 매년 8월 15일에는 사무직과 공정책임자 간의 조화와 더 나은 관계 구축을 위해 하루 동안 야유회가 마련된다. 이 같은 즐거움은 직원 간의 관계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공식 행사 외에도 성우하이텍 인디아는 다양한 직원들의 인식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매달 생산, 품질, 3CS에서 가장 두각을 보인 직원들을 수상 및 인증서로 인정해주고 있다. 이는 직원들이 자신들의 최선의 노력에 대해 자랑스러워하게 만든다. 매일 작업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나 장비에 대한 '추수감사절'인 '아유다 푸자(Ayudha Pooja)'의 기간 동안 최고 직원상 및 출석상을 수여함으로써 직원들을 인정하고 동기를 부여한다. 최고의 성과상 및 출석상은 회사의 규칙 및 기준에 따라 부서 단위로 수여된다. 시상식에서는 법인이 서명한 상장과 소정의 상금도 함께 주어진다.

서로의 다양성을 이해하며 만들어가는 유대감

성우하이텍 인디아는 다문화화를 인식하는 차원에서 6개월 마다 특별 훈련 비자로 직원들을 일괄적으로 한국 성우하이텍 본사에 보낸다. 한국에서의 교육 동안 직원들은 첨단 기술과 생산 방법을 배운다. 직원들의 기술 수준은 향상되며 다채로운 문화적 다양성에 익숙해진다.

따뜻한 마음나누기에 앞장서다

성우하이텍 인디아의 모토는 인도의 스탬핑 및 조립 부품 분야에서 더 뛰어난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회사가 자리 잡고 있는 마을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것에 기여하려 한다. 회사는 마을의 학교 아이들을 위해 매년 책과 학습 자료들을 지원한다. 학교의 운동회 선물도 회사가 후원하고 있다. 인도 현지 축제인 디왈리 축제 중 성우는 마을의 가족들에게 과자를 제공함으로써 행복에 참여하기도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마을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성우의 이미지가 향상되어 따뜻한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성우하이텍 인디아는 인도 마을에서 사회적 발전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성우하이텍 인디아의 이러한 모든 활동과 전략은 우리의 직원들과 이들의 가족들이 인도 내 최고의 글로벌 회사를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만들어준다. 🌈

공동운명체로서 지역사회와 함께해온 나눔의 기업문화

‘이웃사랑, 문화사랑, 환경사랑’으로 신뢰 다져온 성우의 사회공헌활동

기업과 사회는 서로 나누고 공유해야 하는 공동운명체이다. 성우하이텍의 사회 공헌활동은 이 같은 고민에서 출발했다. 창립 이래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오늘날까지 지역사회와 함께 써내려온 공동운명체의 역사가 바로 성우하이텍의 사회공헌활동이다.

**The Corporation culture of continuously sharing
with the local community bounds the group together with a sense of common destiny**

**Sungwoo Hitech social activities through ‘love neighbor, culture
and environment’ have established trust.**

Sharing with each other bounds together the Corporation and the community with the sense of a common destiny. The Social activities of Sungwoo Hitech are based on this thought. Through contribution activities since establishment, Sungwoo Hitech has been taking care of its social responsibility and made history as a group bound together with the local community with a common destiny.





1 2014년부터 기장군에 소재한 '해피스쿨'에서 목욕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Sharing love through a bathing voluntary work at 'Happy School' located in Gijang-gun since 2014.) 2 장애인 아이스슬레지하키 국가대표팀 후원(Supported the national ice sledge hockey team)

다양한 분야, 편중되지 않는 사회공헌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창립 이래 성우하이텍은 사회공헌활동의 테마를 '이웃사랑', '문화사랑', '환경사랑'의 세 가지로 정하고, 지역과의 마음나누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전사적으로는 나눔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사회공헌 대상을 정부기관, 지자체, 복지시설, 자연환경, 교육기관, 언론기관 별로 후원 대상을 선정하였다. 이는 사회공헌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또 'KNN 환경마라톤대회', '부산일보 바다하프마라톤' 등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사업, 'BIFF 메세나' 등 향토지역을 위한 문화사업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2010년에는 또 한 번의 변화가 있었다. 2009년까지의 사회공헌활동은 주로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2010년부터는 매월 임직원 스스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성우공동모금 통장에 적립해 이웃에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현재 임직원 약 1천여 명이 참여하여 사업장 인근 초등학교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매월 10~15명의 직원들이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정신지체장애우들의 학습프로그램을 보조하고, 야외활동 및 시설청소, 외곽 제초작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2014년부터 기장군에 소재한 '해피스쿨'에서 목욕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To have non-biased social contributions in a variety of field

From the very beginning, Sungwoo Hitech set three themes of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love neighbor', 'love culture', and 'love environment', and has been actively promoting activities with the local communities. It established company-wide sharing networks and selected subjects of support categorized by government organizations, local organizations, welfare centers, natural environment,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the media.

This is for well-balanced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which are not biased to an area. It also has actively been supporting cultural businesses for local communities such as 'KNN environmental marathon', 'Busan Ilbo sea half marathon', 'athletic program for civic health', and 'BIFF seminar'.

In 2010, there was another change. While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were carried out on the expense of the company until 2009, employees who want to support neighbors have paid certain amount of money from their salary and give it to a collective charity account to share warm heart to neighbors since 2010. Now about 1000 employees have joined the program and support scholarships to an enamored elementary school. And about 10 to 15 employees support educational programs for students with mental disorder, clean facilities, and complete weeding on a monthly basis and have been sharing love through a bathing voluntary work at 'Happy School' located in Gijang-gun since 2014.



1 성우하이텍은 2005년부터 부산 한국과학영재학교 후원과 더불어 기장군청 장학기금 기탁, 법사랑위원 부산지역협의회 등에 인재 육성을 위한 후원 및 시설개선사업을 꾸준히 벌여오고 있다. (Sungwoo Hitech has been engaged in sponsoring facilities improvement projects to nurture talented people; it has supported Busan Science School since 2005, donated scholarship to the county office of Gijang-gun, and supported Korea BBS Busan city association.)



인재육성 백년대계, 그 반석을 다듬으며

성우하이텍이 다양한 분야의 사회공헌활동 중 가장 관심을 보이는 분야는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이다. 이명근 회장은 “교육은 인재육성을 위한 지역의 백년대계로,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이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에 지장을 받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앞으로도 힘이 닿는 데까지 장학사업 및 어려운 이웃을 돕고,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성우하이텍은 2005년부터 부산 한국과학영재학교 후원과 더불어 기장군청 장학기금 기탁, 한국BBS 부산시연맹 등을 대상으로 인재 육성을 위한 후원 및 시설개선사업을 꾸준히 벌여오고 있다. 특히 청소년 선도와 범죄예방사업을 위해 법무부 법사랑위원 부산지역협의회를 통해 가정형편이 어렵고 품행이 모범적인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지역 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와 연계하여 졸업생은 현장실습을 통한 취업 기회를 넓혀주고 있다. 특히 이명근 회장은 2012년에 미래 일꾼 육성을 위한 성우희망재단을 설립, 인재육성을 위한 백년대계의 반석을 다듬고 있다.

As we pave the way to nurture talented people: a hundred years span plan

The area in which Sungwoo Hitech is interested the most is a scholarship program for nurturing talented people. “Education is a plan which spans on a hundred years.” says Chairman Mr.M.K.Lee. “It is a pity that youth are having trouble continuing their studie due to economic situation.” He empathized that he will continue the scholarship program as best as he can and take the lead in making a beautiful society where people live together harmoniously.

Sungwoo Hitech has been engaged in sponsoring facilities improvement projects to nurture talented people; it has supported Busan Science School since 2005, donated scholarship to the county office of Gijang-gun, and supported Korea BBS Busan city association. In particular, it has been supporting scholarship for youth who are exemplary student through Busan council of law-loving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Justice to lead youth and prevent crimes. And in conjunction with local high schools and universities, it provides opportunities for those who graduated these schools to have in-site training. In particular, Chairman Mr.M.K.Lee established Sungwoo hope foundation in 2012 to nurture talented people and paved the way for a hundred years span plan.

장애와 비장애 구분 없는 고용창출은 ‘더불어 사는 사회의 필수 조건’

Creating jobs regardless of disabilities is a prerequisite of a society

성우하이텍은 지역의 고용창출을 위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역 경제가 위축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려 호평을 받아왔다. 특히 성우하이텍이 선택한 다양한 방식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높이 평가돼 2010년 ‘제2회 부산고용대상 대상(부산시장상)’을 수상했고,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2014년에는 ‘고용우수기업 25개사’에 선정됨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인증서’를 취득했다.

더불어 성우하이텍은 2010년 전국에서 최초로 부산시, 부산상공회의소,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체결했다. 이 같은 장애인고용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과 장애인고용 인식 확산을 위한 경영진의 노력을 인정받아 2010년 고용노동부로부터 ‘True Company 금상’을 수상했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사로 부터 ‘착한고용’ 실천기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여기서 받은 고용장려금은 다시 정신지체, 발달장애우 교육 및 생활시설에 전액 기탁하기도 했다. 성우하이텍의 장애인 정규직 전환율은 100%이다. 장애인고용이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의 필수 조건’임을 인식하고 지역 내 장애인고용 인식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Sungwoo Hitech is also supportive for job creation in the region. It has always been gathering acclaims by maintaining or expanding job openings even in a difficult time when the economy is shrinking. In particular, it won ‘the grand prize of the second Busan employment award (mayoral award)’ in 2010 and is selected as a ‘top 100 companies excel in job creation’. In 2014, it was selected to be a ‘top 25 companies in job creation’ and acquired a “certificate for a corporation excel in job creation in Busan”. In addition, Sungwoo Hitech has concluded ‘the agreement to promote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in 2010 for the first time in Korea with Busan city, Busan Chamber of Commerce, and the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It won the ‘gold award of true company’ from the Ministry of Labor in 2010 since it has been recognized for its work to promote employment for the disabled and was selected to be a modeling case of ‘good employment’ by the Busan branch of the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Employment promotion grant given in this award has been donated to educational facilities and centers for the disabled. The disabled who are employed at Sungwoo Hitech become a 100% regular worker. It recognizes that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is a prerequisite of a society which we live together and has been taking a leading role in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in the community.

2 2010, ‘트루컴퍼니’ 금상 수상(2010, Won the ‘gold award of true company’) 3 2010, 제2회 부산고용대상(부산시장상) 수상(2010, Won ‘the grand prize of the second Busan employment award (mayoral award)’) 4 2010,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선정(2010, Selected as a ‘Top 100 companies excel in job creation’) 5 2014, 부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선정(2014, Acquired a certificate for a corporation excel in job creation in Busan)



글로벌 사랑나눔, 성우하이텍이 앞장서다

성우하이텍은 세계시민으로서 글로벌 사회공헌활동도 매우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재한외국인사회통합지원센터 후원, 세계인의 날 행사후원, 이주민 추석 큰잔치 후원, 다문화가족과 함께 하는 사랑나눔 음악회 후원 등으로, 국내의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 때 큰 피해를 본 중국인들을 위해 부산 주재 중국 총영사관에 전 임직원이 모금한 의연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2010년에는 서인도 제도의 아이티에 지진 참사가 났을 때에도 전 임직원이 동참하여 지진 피해 구호성금을 모금해 대한적십자사에 보냈다. 이 밖에도 동일본 대지진 피해 유가족 성금, 월드비전 후원 등 체계적인 글로벌 사랑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해외에서의 글로벌 사랑나눔은 인재육성 백년대계로도 이어졌다. 베트남 산악지역 거주 소수민족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 2012년 1월 완공된 베트남 팡 뜨리주 따 룡 자치행정구 내 리 푼 마을의 1호 초등학교를 비롯하여 2014년까지 세 곳의 초등학교 건립을 후원하였다. 이렇듯 성우하이텍의 글로벌 사회공헌은 세계인들과 마음을 나누는 데 앞장 서며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고 있다.



Sungwoo Hitech takes the lead in sharing love globally

Sungwoo Hitech has been engaging in social activities very actively as a world citizen. It supports multi-cultural families by supporting a lot of organizations and activities such as the Support Center for Foreigners Living in Korea, The day of people around the world, the Big Event for the Immigrant, and love sharing conce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2008, it delivered a contribution to the Chinese Consulate in Busan to console Chinese who have suffered from the earthquake in Sichuan, China. When there was an earthquake in Haiti in 2010, it collected contribution and delivered it to the Korea Red Cross. In addition to these activities, it has been in the forefront of sharing love in activities such as the contribution for those who have suffered from the earthquake in the East Japan and support for World Vision.

Global love sharing activities abroad has led to a plan to nurture talented people. To provide the opportunity for education for ethnic minority children who live in the mountains of Vietnam. It supported constructions of schools such as the first elementary school in Ly Ton town, Ta Long borough, Quang Tri state, Vietnam, which was completed in January 2012 and three others until 2014. As such, Sungwoo Hitech has been contributing to promote happiness by engaging in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globally.



1 지역사회 시민 건강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 지원(Supporting athletic program for civic health businesses for local communities) 2 2012년 1월 완공된 베트남 팜 뜨 리주 따롱 자치행정구 내 리 톤 마을의 1호 초등학교를 비롯하여 2014년까지 세 곳의 초등학교 건립 후원(Supported constructions of schools such as the first elementary school in Ly Ton town, Ta Long borough, Quang Tri state, Vietnam which was completed in January 2012 and three others until 2014) 3 매월 정신지체장애우 학습프로그램 보조(Support educational programs for students with mental disorder on a monthly basis) 4 정관농공단지 환경정화활동(Jeonggwon agricultural complex environmental clean-up activities)

지속가능한 기업 = 사랑받는 기업

급속한 시장 변화와 글로벌화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성우하이텍은 사회공헌활동을 끊임없이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과 소외계층 지원에 목표와 관심을 두고, 그 속에서 기업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실천하는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성우하이텍이 추구하는 생명존중과 기업 시민정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강한 마음나누기'의 표현이다.

앞으로도 성우하이텍은 마음을 나누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더불어 다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의 공동운명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욱 '사랑받는 기업'으로 나아가고자 그 역동성을 더할 것이다. 

Sustainable company = Beloved company

Due to rapid market change and globalization, many companies are trying to reduce costs and increase profits. Even in this situation, Sungwoo Hitech is constantly expanding its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In addition, it has been trying to become a company that can be sustainable while focusing on activities that support and develop local communities and the role that needs to be taken by a company. This is the expression of 'strong heart', which is a motto of Sungwoo Hitech that wants to continuously promote life-respecting and social corporation spirit.

To become a group that shares a common destiny with a society where everyone lives together harmoniously, Sungwoo Hitech will continue its efforts to become a more beloved company than now. 



1%의 나눔 활동, 그만큼 세상은 더 아름다워진다

성우공동모금

성우가족은 2010년부터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사랑의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성우공동모금'을 실시하고 있다. 거창한 구호보다 내실 있는 실천이 먼저인 1%의 나눔 활동은 매월 급여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여 성우공동모금 통장에 적립한다. 현재 서창, 정관 사업장 등의 인근 초등학교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 학생들이 밝은 미래를 꿈꾸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1% 나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성우가족들은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의 사회 공헌활동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참여해 사랑을 나눈다는 점에서 매우 적극적이다. 보람도 느낀다. 장학금을 받은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편지를 보내온다. 그 편지 속에는 아이들이 전하는 고마움과 순수함이 가득하다.

1% 나눔으로 돌아오는 기쁨은 1,000% 같아서 가슴이 벅차오른다.



THANK YOU

편지왔어요!



오늘 이 편지를 쓰게 된 까닭은 저희 학교를 여러 가지로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저희 학교에 도서 기금을 기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의 양식인 책을 더욱 많이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곧 졸업하지만, 후배들이 불편함 없이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정관초등학교 학생들이 성우하이텍 덕분에 더욱 좋은 환경에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관초등학교 학생 모두가 열심히 공부해서 나라를 빛낼 인재가 되어, 성우하이텍 가족 여러분이 정관초등학교에 보내 주신 사랑에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초등학교 학생회장 신지현 올림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멋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추운 겨울 몸 건강히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서창초등학교 5학년 4반 송희영 올림

성우하이텍 감사해요! 우리 학교 급식비 등 많이 지원해주신다고 들었어요. 저도 나중에 커서 서창초등학교에 기부를 꼭 해야겠어요! 존경합니다!

서창초등학교 5학년 3반 우지민 올림

성우하이텍에서 지원해주셔서 저희 초등학교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저도 멋진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창초등학교 6학년 1반 김진희 올림

말로 전해드리고 싶지만 편지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썼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서창초등학교 5학년 2반 이범석 올림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집안 형편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올 한 해도 주변 분들의 지원 덕분에 현장체험 학습을 경제적 어려움 없이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졸업을 앞두고 졸업 앨범까지 지원을 해주신다는 담임 선생님의 말씀에 너무나도 기쁘고 놀라웠습니다. 선생님께 여쭙어 보니 성우하이텍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매달 학생 장학금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뿐만 아니라 20명의 학생들도 저와 같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기다리 아저씨처럼 저희들을 묵묵히 지원해 주시는 분들께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을 편지로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저도 훗날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었을 때 어려움에 처해있는 학생들을 외면하지 않고 돕고 싶습니다. 제 자신보다 낮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면서 살겠습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따뜻함을 선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정초등학교 6학년 5반 유민지 올림

안녕하세요. 회장님~ 회장님 덕분에 저희 학교에 불편 시설을 고치게 되어서 저희 학교 학생들이 정말 편안해 해요! 저도 커서 회장님 같은 우리 학교의 멋진 선배가 되고 싶어요.

서창초등학교 5학년 3반 차하나 올림

이렇게 편지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뻐요. 저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꼭~ 감사드립니다.

서창초등학교 5학년 2반 김민재 올림



행복을 위한 남다른 생각

‘행복나눔125’ 손 욱 회장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행복은 인간 삶이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이다. 하지만 부단히 노력해도 선뜻 다가서거나 손에 쥐지도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마음의 고통과 정신적 혼란이 불쑥불쑥 찾아올 때가 더 많다고 느낀다. 그래서 자기 계발에 몰두해 보고, 때로는 운동도 열심히 해본다. 나눔도 실천해 본다. 그래서 만족할까? 그리고 행복할까? ‘그렇다!’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분명 이유가 있다. 무엇 때문인지 ‘행복나눔125’를 외치는 손 욱 회장을 만나보자.

글 | 객소록





행복나눔125 운동의 틀을 완성하다

한국의 잭 웰치, 혁신의 전도사, 최고의 테크노 CEO, 행복 전도사 등 손욱 회장에게는 많은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행복나눔125’는 그가 창안한 정신문화운동의 명칭이며, 그가 이끌고 있는 단체의 명칭이다.

손욱 회장이 국내 굴지의 재벌그룹사 CEO로 재직할 때부터 일선에서 늘 고심한 것은 한국형 GWP(Great Work Place: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형적인 서구형 방법론에 늘 부딪히곤 했다. 좌뇌 중심의 서양인은 논리적인 반면, 우뇌 중심의 한국인은 감성적인 성향을 가졌다. 감성의 기본은 마음이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매사가 의욕 상실이고 부정적이다. 기업의 수많은 혁신 운동이 비용만 들어가고 효과가 없는 이유이기도 했다. 손욱 회장은 고심을 거듭했다. 그러던 중 깨달은 것이 있었다. 행복한 일터, 그것도 한국형 GWP는 무엇보다 ‘감사’를 바탕으로 해야만 성공한다는 것. 내가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일터가 행복하고, 일터가 행복하면 사회가 행복하고, 사회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하다는 극히 단순한 진리를 깨달았던 것이다.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선 지금, 지난 세기에 제창된 새마을운동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국민적인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주)농심에서 시행했던 ‘착한 일’, ‘독서·토론’의 조직 문화에 ‘감사’를 더했다. 사회운동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다. 2010년 1월, 좀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감사나눔 신문을 창간하고, 3월에는 행복나눔125 운동의 틀을 완성했다. 운동의 방법은 간결하다. 첫째, 1주일에 한 번은 착한 일을 한다. 둘째, 한 달에 2권의 좋은 책을 읽는다. 셋째, 하루에 5개의 감사 일기를 쓴다. 그래서 ‘125’다.

손 욱

1967년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1975년 삼성전자 사원으로 입사. 삼성SD사장, 삼성종합기술원장, 삼성인력개발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주)농심 대표이사를 지냈다. 대표적인 기술경영인이자 혁신의 전도사로서 경영혁신대상 최고경영대상(1997년), 과학기술훈장 혁신장(2001년), 31문화상 및 기술경영인상(2003년) 등을 수상했다. 2003년 ‘제2회 달고 싼고 되고 싶은 과학기술인’, 2006년에는 개교 60주년을 맞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이 한국공학한림원과 공동으로 발표한 ‘한국을 일으킨 엔지니어 6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최근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그는 ‘행복나눔 125’ 운동을 주도하며, 감사나눔 운동과 한국형 조직문화 운동 전파에 매진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삼성, 집요한 혁신의 역사》, 《그래도 행복해지기》, 《십이지 경영학》, 《나는 당신을 만나 감사합니다》 등이 있다.

행복나눔125가 가져온 기적 같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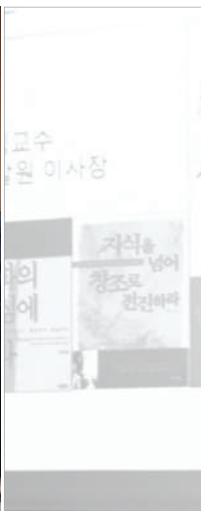
행복나눔125는 서울시의 사회적 기업으로 출범했다. 처음엔 기업을 대상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를 시작했다. ‘일터가 행복해야, 그 행복해진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는 취지였다.

행복나눔125 운동이 전파된 첫 번째 기업은 포스코 ICT라는 기업이었다. 포스테이터와 포스콘을 하나로 합쳐 만든 회사가 포스코 ICT였다. 두 기업은 서로 다른 조직 문화가 있었다. 이른바 이질적인 두 기업이 물리적으로만 합쳐졌던 만큼 융화보다는 갈등이 우려됐다.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주로 하는 포스콘은 현장 중심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 포스테이터

와는 이질적인 무엇이 있었다. 두 기업을 하나로 만드는 융합이 제1과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당시 포스코 ICT의 CEO였던 허남석 前 사장은 해법을 찾던 중 손욱 회장의 행복나눔125 운동을 도입했다. 2009년, 당시 43%에 그쳤던 직원 몰입도는 2010년 4월에 시작된 행복나눔125 운동 시작을 선언한 불과 몇 달 뒤 58%로 상승했다. 이듬해인 2011년에는 70% 도달 목표를 세웠음에도 결과는 84%를 달성했다. 대성공이었다. 직원들은 신바람 나는 일터로 가꾸어 나갔다. 포스코의 정준양 前 회장은 이 놀라운 결과를 포스코 전 그룹으로 확산시켰다. 포스코의 성공 사례는 포스코 내부에만 그치지 않았다. 서울시 공무원노조, 광양시, 대림그룹 등이 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그 사이에 포항시의 모든 학교 학생 8만 명에게 노트를 나눠주고 감사수기를 생활화할 것을 권장했고, 포항시는 점차 행복 도시로 변모하게 되었다. 잇따라 전국의 학교들이 행복나눔125 운동을 도입하고 있다. 최근에는 교도소에서도 이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육군교도소에서 처음 도입한 후 행복한 교도소가 됐고, 청주 여자교도소, 청송교도소 등 일반 교도소들도 도입하기 시작했다. 군(軍)과도 협력했다. 문제 사병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2012년부터는 전 군과 육사에도 행복나눔 운동을 전파하고 있다.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한국형 리더, 세종대왕을 주목하다

손욱 회장은 한국형 리더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한국형 리더십에 대해서도 고심해 왔다. 한국인들은 마음이 통해야 일을 잘한다. 바로 소통에 답이 있었다. 그런 맥락에서 그는 조선왕조 500년 역사 중 가장 훌륭한 임금으로 추앙받고 있는 세종대왕의 소통, 즉 '경연'에 주목했다. 나이 많은 관료와 집현전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책 한 권을 읽고 그 내용을 토론하는 것이었다. 세종은 그 일을 1,898 일 동안 했다. 한 달에 6~7회, 많게는 일 년에 250회를 왕이 직접 토론회를 진행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토론을 통해 전체 구성원들의 지식수준이 올라갔다.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 사이에 융합과 시너지가 생겼다. 소통으로 인하여 조선을 강국으로 만든 초석이 다져질 수 있었던 것이다. 두 번째로 주목한 점은 세종은 감사할 줄 알았다는 것이다. 백성들이 있음에 나라가 있고, 신하가 있음에 과학 기술이 개발·발전된다고 생각했다.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백성과 신하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
 행복나눔125 전파에
 올인해서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그의 목표는
 더욱 강력한
 현재진행형이다.

”

바로 칭찬이었다. 세종실록을 보면 온 사방에 칭찬하고, 상 주고, 격려하는 장면이 많이 나온다. 세종은 칭찬하는 왕이었다. 세 번째로, 세종은 남을 위해 베풀고 나누며 살았다. 왕의 권력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이 아는 지식과 힘을 나눠주었다.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율적이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했다. 왕이 직접 나서서 나눔을 실천했다. 그를 본받아 신하들도 모두 베풀기 시작했다. 백성들도 나누었다. 품앗이, 두레 등 나눠주고 힘을 보태는 공동체 활동들이 활발히 일어났다.

손욱 회장은 이런 세종대왕의 리더십에서 착안했다. 독서·토론으로 소통의 문화를 만들고, 감사한 마음으로 칭찬해서 신바람 나는 조직을 만들고, 나눔과 배려로 서로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조직을 만든다는 것에 집중했다. 세종대왕이 조선을 창의적인 과학기술과 문화융성국가로 만든 원천에는 평상시 수평적인 소통으로 신뢰를 다져놓아서 신하들은 리더를 믿고 창의성을 발휘하며 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국형 리더십의 덕목이다. 여기서 행복나눔125는 한국형 리더로 성장하는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다. 손욱 회장은 독서·토론, 감사, 나눔을 통해 행복을 깨달은 사람들을 '감사불씨'라고 부른다. 행복한 삶을 느끼고, 행복한 사람으로 변한 사람들이다. 불씨들을 모아서 잘 격려하면 불길일어난다. 이런 불씨들을 잘 지펴 활활 타오르는 불길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한국형 리더가 해야 할 일인 것이다.

융합, 그리고 행복시대를 행복나눔125와 함께

손욱 회장은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는 없다”고 말한다. 행복나눔125를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다 전파해서 행복한 세상을 앞당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의 목표는 확고하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자살률, 이혼율, 교통사고 사망률, 산업재해 사망률 등에서 거의 TOP을 달리고 있다. 때문에 행복나눔125 전파에 올인해서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그의 목표는 더욱 강력한 현재진행형이다.

손욱 회장의 또 다른 목표는 한국의 중소기업을 키우는 것이다. 중소기업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세계로 뻗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강한 중소기업들을 많이 키워야 우리나라가 더 발전한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손욱 회장은 현재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리더십이 부족해 고용창출의 핵심인 중소기업이 더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손욱 회장은 현재 서울대학교융합기술원에서 행복나눔125를 접목한 한국형 리더를 양성하는 WCCP과정(World Class Convergence Program, 월드클래스융합최고전략과정)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을 통해 5기째 한국형 리더를 배출해 냈다. 앞으로 이 교육 과정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리더의 그릇을 키워주면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WCCP는 그릇이 커지는 교육입니다.” 손욱 회장은 이러한 리더십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면 대한민국에 훌륭한 월드클래스 기업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라는 꿈을 갖고 있다. 행복해야 창조가 된다면서 얼굴 가득 미소를 담아 얘기하는 손욱 회장. 그는 행복나눔125 운동으로 융합시대를 열고자 한다. 융합을 하려면 마음부터 열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그의 얼굴에는 이미 행복이 가득해 보였다. 



겨울, 눈 덮인 제주의 매력에 빠지다





J e J U

제주도는 언제나 먼 나라로 떠나는 것 같은 설렘을 주는 여행지지만 겨울에 만나는 제주는 더 특별한 매력이 있다. 노란 감귤이 주렁주렁 달린 과수원 너머로 머리에 눈을 하얗게 이고 있는 한라산이 마치 구름 속에 떠 있는 것처럼 눈앞에서 빛나는 모습을 보면 그 비현실적인 풍경에 가슴이 뜨거워진다. 특히나 눈이 드문 지역 사람들에게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만나는 눈 쌓인 세상은 또 다른 축복이다. 제주도 여행이 한두 번은 아니겠지만 오늘은 남들이 쉽게 가지 않는 제주의 속살을 찾아 떠나 보자.



1 1100도로를 따라 가다보면 하얀 설국이 나타난다. 2 구상나무 군락은 마치 꿈 속의 풍경을 옮겨놓은 듯 하다. 3 오백나한 길 위에서 제주의 풍경을 보고 있다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한희가 가슴 한쪽을 가른다. 4 자연, 그 태초의 모습을 보여주는 용눈이오름의 곡선은 보는 이로 하여금 평화를 느끼게 한다.

영실 구상나무 숲 속으로

1100도로를 따라 하얀 설국으로 가는 길, 나뭇가지들이 모두 백록이 되어 가지마다 빛나고, 상록의 굴거리 나무조차 두꺼운 눈 외투를 뒤집어 입고 숨어 버린다. 아이젠을 하고 영실 소나무 숲길로 빠져들듯 걸어간다. 졸졸 흐르는 계곡을 따라 10여 분을 걸으니 드디어 거대한 오백나한이 보이기 시작한다. 마치 오백의 불상과도 같고, 아니면 오백의 장군과도 같은 기기묘묘하고 기상이 넘치는 검은 바위가 하늘을 향해 웅장하게 솟아 있다. 나무로 된 계단을 오를 때마다 오백나한은 춤을 추듯이 따라온다.

얼마쯤 올랐을까? 시선을 어느 곳에 두어야 할지 모르겠다. 옆으로는 검은 용암 벽이 갖가지의 형상을 만들어 그 위용을 자랑하고, 앞으로는 제주의 남쪽 바다가 하늘인지 바다인지 경계를 알 수 없이 푸르게 빛난다. 아래로는 이름 모를 오름들이 하얗게 눈을 이고 바다를 향해 꿈틀거리며 내려가고 있고, 입을 벌린 듯 검은 계곡은 그 끝이 보이지 않게 깊다. 나무 계단을 다 오르면 이제 구상나무 군락이다. 앞으로 걸어 갈수록 수빙이 되어버린 구상나무 군락이 얼음으로 만든 옷을 입고 끝없이 늘어서 열병을 한다. 마치 겨울왕국의 얼음 세상에 온 것 같다. 구상나무 가지 끝에는 주렁주렁 투명한 고드름이 열려 햇살에 반사될 때마다 영롱한 오색으로 반짝이고, 온통 눈 외투를 입은 나무들은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온갖 모양의 아름다운 얼음 조각을 만들어 보여준다. 꿈속의 세상이다. 구상나무 군락 터널을 지나자, 광활한 순백의 별판이 펼쳐진다. 여기서부터가 그 유명한 선жат지왓이다. 철쭉꽃이 피기 시작하면 별판이 붉은 바다가 되는 곳, 한라산 북벽과 어우러져 사진으로 가장 많이 소개되는 곳이 이곳 풍경이다. 선жат지왓이 끝나는 곳에 보이는 바다는 하늘과 뒤섞여 바라보기 힘들게 반짝인다. 마치 내가 한 마리 새처럼 가벼워져서 날개를 활짝 펼치고 자유를 만끽하면서 이 별판을 날아가는 듯한 환상을 느낀다.

TIP 영실까지 가기 위해서 겨울에는 교통통제 확인이 필수다. 제주 교통안내센터(T.064-710-6278)로 확인하면 친절하게 가르쳐 준다. 시간이 된다면 한라산 1,200m에 자리한 존자암에 들려보는 것도 좋다.

용눈이오름을 걸어 보셨나요

송당 네거리를 지나 비자림 쪽으로 들어서면 풍경은 온통 오름의 천국으로 변한다. 육지에서 온 사람이 보기에는 경주의 거대한 왕릉을 보는 듯, 작거나 크거나 둥글거나 각이 진 오름이 널려 있다. 제주도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서쪽으로 오름이 많이 있다. 360여 개가 넘는 오름의 많은 부분이 서쪽의 애월읍과 동쪽의 구좌읍에 흩어져 있다. 용눈이오름이 있는 곳은 구좌읍. 용눈이오름을 중심으로 다랑쉬오름, 아부오름, 높은오름 등 40여 개의 오름이 구좌읍에 있다. 용이 누워 있는 모습 같다고 용눈이, 또는 용눈이 오름이라고도 불리어지는 이 오름은 사진작가 김영갑의 사진으로 유명해졌다. 마치 여인의 누드를 연상케 하는 오름의 능선이 겹치고 겹친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평화를 느끼게 한다.

겨울이지만 조금씩 초록빛이 섞여 있는 오름의 능선을 천천히 오른다. 새끼봉우리가 작은 왕릉처럼 얼굴을 내밀고 그 사이사이 돌담을 친 제주의 무덤들이 평화롭게 누워 있다. 용눈이오름은 모든 것이 곡선이다. 부채살 모양으로 흘러내린 유려한 곡선은 말할 것도 없고, 두 개가 서로 이어진 굴부리의 형태도 부드러운 곡선이다. 능선과 능선 사이로 보이는 하늘도 곡선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도 곡선으로 변한다. 누구든 용눈이오름에 와서 감탄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신이 빚은 이 곡선의 편안함에 무장해제되기 때문이라. 올레길을 걸음으로 제주의 속살을 발견하였다면 오름을 오르면서 제주의 영혼을 발견했다고 할까? 오름을 오르고 나면 제주가 왜 우리에게 그렇게 특별한지 알게 된다. 제주의 오름들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제주의 풍경을 보여준다. 사방으로 탁 트인 풍경을 보여주기도 하고, 거문오름처럼 곳자왈을 보여주기도 한다. 물영아리오름은 숲으로 둘러싸여 분화구에 물을 가득 품기도 하고, 송악산에 오르면 끝없는 바다를 보여 주기도 한다.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 진정한 제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오름이다.

TIP 용눈이오름 가까이에 아부오름과 오름의 여왕이라 불리는 다랑쉬오름에 가보는 것도 좋다. 길게 제주에 머문다면 거문오름을 꼭 둘러보기를 권한다. 단,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은 예약을 해야만 오를 수 있다. <http://거문오름.kr>로 인터넷 예약하거나 세계자연유산센터(T.064-784-0456)에 문의하면 된다. 매주 화요일은 탐방이 불가하니 주의.



방선문을 지나 신선을 만나다

방선문을 가기 전에 미리 방선문의 전설을 알아야 한다. 옛날 백록담에는 복날이면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했는데, 이때 한라산 산신은 방선문 밖 인간세계로 내려와 선녀들이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런데 어느 날 선녀들이 백록담에 도착할 때까지 한라산 산신은 미처 방선문을 통과하지 못했다. 격노한 옥황상제는 한라산 산신을 하얀 사슴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 뒤 한라산 산신은 매년 복날이면 백록담에 가서 슬피 울었다. 그래서 하얀 사슴 연못, 백록담이 생긴 것이다. 방선문은 선계와 속계의 경계이며 전설의 실재인 것이다.

방선문은 최근에 명승으로 지정되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주도 사람들만 찾는 그들만의 호젓한 장소였다. 제법 심상치 않게 생긴 깊은 계곡을 끼고 한참을 올라가면 방선문 안내판이 보인다. <“영구춘

1 매년 복날 하늘의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하던 백록담의 눈 덮인 풍경이 눈부시다. 2 방선문은 아치형 바위로, '신선이 사는 곳으로 들어가는 문'이란 뜻이다. 3 선녀들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하얀 사슴으로 변한 한라산 산신의 모습이 구슬프다.

1



초록 마늘 밭 너머
 검은 돌담
 검은 돌담 너머
 노랑 유채 밭
 노랑 유채 밭 너머
 푸른 바다
 너머와 너머 사이에
 제주가 있다.

우리는 그 너머를 건너 온 사람들이다.

- 詩 박강순



화” 여기는 제주 10경의 하나로 봄날 바위틈에 참꽃이 피어 있는 모습이 절경>이라고 쓰여 있다. 계곡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을 조심조심 내려가니 주상절리가 보이는 거대한 검은 바위가 어둑한 계곡에 가득하다. 마치 지리산 계곡에 들어온 것처럼, 기묘한 바위들이 줄지어 서 있고 거북등 같은 용암반석과 난대림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고 있다. 제주에도 이런 계곡 미(美)가 있던가 싶다. 방선문은 이제부터 신선의 세계임을 과시하며, 기괴한 바위가 무지개다리를 만들어 계곡 가운데 턱 버티고 서 있다. 안으로 들어가니 제법 널찍한 공간이 있고, 그 천장과 옆면 이어지는 바위에 술하게 글이 새겨져 있다. 방선문에는 조선 시대 이곳에 놀러 온 많은 양반들이 마애명을 새겨 놓았다. 단지 이름만 쓴 사람도 있고 시문을 새긴 사람도 있다. 누가 썼는지 모르는 방선문 글씨는 하늘로 날아가는 듯 아름답다. 이름을 새긴 사람은 수십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고, 다만 입구에 “최익현”이라는 마애명은 누군지 알 것 같다. 최익현 선생이 제주 유배 시절에 이곳에 구경을 온 모양인데 꼬장꼬장한 선비를 연상시키는 선생께서 이런 여유가 있었나 싶어 피식 웃음이 난다. 방선문은 경치도 빼어나지만 옛사람들의 자취도 살펴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곳이다. 계곡을 올라가면 작은 공원이 있고 그곳에 방선문에 새겨진 시문을 해석해놓은 바위들이 있어서 천천히 그 시문을 읽어 보는 것도 재미있다.

겨울 제주는 눈 쌓인 한라산에서, 수선화 수줍게 피어 흔들리는 서귀포에서, 모진 바람에 힘겹게 서 있는 팽나무 사이에서 당신이 보는 시선에 따라 각기 다른 표정을 보인다. 그 독특한 표정이 제주의 모습이다. 남쪽 끄트머리에 제주도라는 섬이 있어 정말 다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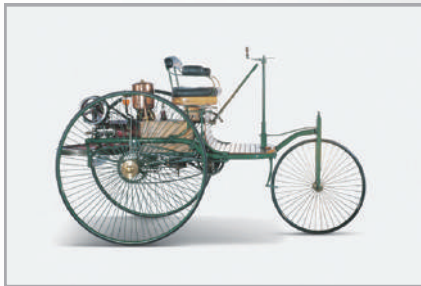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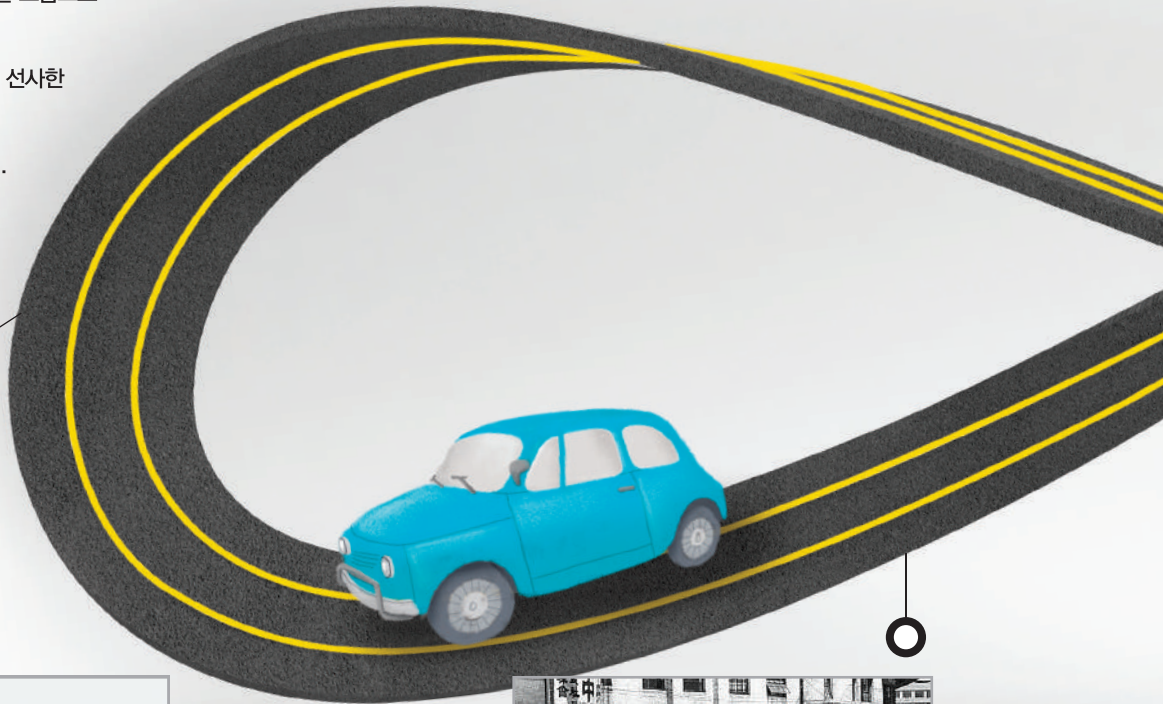
TIP 현재 방선문은 낙석 위험이 있어 잠정적으로 출입을 제한한다고 한다. 가까이 볼 수는 없지만 공원에서 가까우니 비행기 시간에 여유가 있다면 계곡 안에는 못 들어가더라도 주변만 둘러보아도 의미가 있다.

글쓴이 박강순은 국민은행 지점장을 지낸 후 전국은 물론 세계를 여행하며 시를 쓴다. <자유문학>으로 등단하여 펴낸 시집으로는 <동진강>, <상실>, <바람의 흔적>, <단순한 진리> 등이 있다. 짝은 황남수는 문화답사가로 활동하며, 데일카네기와 동부산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사보에는 이들 부부가 제주의 곳곳을 누비며 보고 느낀 아름다운 섬 제주의 숨겨진 절경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자동차와 관련된 최초의 기록들



자동차는 130여 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
긴 시간 동안 자동차는 다양한 모습으로
길 위를 달려왔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놀라움을 선사한
자동차의 역사 속에서
최초의 기록들을 모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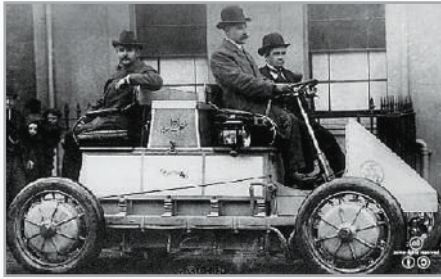
세계 최초의 자동차 'Benz Patent Motor Car'

1886년 칼 프리드리히 벤츠(Karl Friedrich Benz 1844~1929)가 가솔린 엔진을 이용해 만든 삼륜 구동의 이동수단이 세계 최초의 자동차이다. 마차 시대였던 당시 '말 없이 달리는 마차'는 세상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최초로 특허 등록된 자동차는 '페이턴트 모터카(Patent Motor Car)'로 우리나라 말로 '특허 자동차'라는 뜻이다. 1989년 1월 29일 독일 베를린에서 특허 등록된 '페이턴트 모터카'는 지금도 독일 뮌헨의 도이치 박물관(Deutsches Museum)에서 달릴 수 있는 상태로 보관 중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 '시발자동차'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5년 8월, '시-바 ㄹ'이라는 이름으로 최초의 자동차가 등장했다. '첫 출발'을 의미하는 '시발(始發)'이라는 한자어가 풀어쓰기 방식으로 표기된 것이다. '시발자동차'는 정비업을 하던 최무성, 최혜성, 최순성 3형제에 의해 만들어졌다. 미군 지프 엔진과 변속기 등을 사용하였고 차체는 드럼통을 펴서 수공예 방식으로 만들었다. 1900년대 포드 자동차가 최초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50년 뒤의 일이다.



최초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믹스테(Mixte)'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가솔린 엔진과 전기모터, 수소연소엔진 등 두 가지 이상의 구동 장치를 동시에 탑재해 일반 차량에 비해 연비 및 유해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것이 특징이다. 1997년 도쿄 모터쇼에서 선보인 도요타의 프리우스(prius)가 최초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양산이지만 그보다 100년 전에도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존재하고 있었다. 1899년 페르디난트 포르쉐(Ferdinand Porsche 1875~1951)가 개발한 믹스테가 그 주인공이다. 믹스테는 프랑스어로 '혼합된'이라는 뜻이다. 믹스테는 사륜 구동으로 각각의 바퀴마다 전기모터를 장착해 독립적인 힘으로 달린다. 이에 가솔린 엔진으로 힘을 더했다. 최초로 전기와 가솔린을 동시에 구동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인 셈이다.

사진 출처 |
세계 최초의 자동차_벤츠 공식홈페이지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_문화일보, 네이버
최초의 하이브리드 자동차_Wikipedia
쏘나타, 스텔라_현대기아자동차 공식홈페이지



성우하이텍에서 최초로 납품한 자동차 '스텔라(STELLAR)'

성우하이텍은 1983년에 현대자동차 '스텔라'의 몰딩 개발·납품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자동차산업에 뛰어들었다. 스텔라는 쏘나타(당시, 소나타)의 모태이다. Y카로도 불리는 스텔라는 1983년 등장했다. 1978년 현대자동차는 이탈리아인 주지아로(Italdesign Giugiaro)에 디자인을 의뢰해 스텔라를 탄생시켰다. 스텔라 차명은 '별의, 별 같은, 우수한, 일류의'라는 뜻으로 라틴어 'Stellaris'에서 유래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자체 디자인 자동차 '쏘나타(SONATA)'

1세대 쏘나타는 1985년 '스텔라' 고급형으로 출시되었다. 이후 1988년 6월에 출시된 2세대 쏘나타는 우리나라 최초의 자체 디자인 모델이다. 기존의 디자인과는 달리 우리나라 기후에 맞게 공기 역학을 중시한 라운드 디자인이 특징이다. 쏘나타는 최초의 자체 디자인 외에도 중형차로는 국내 최초로 미국에 수출된 기록도 가지고 있다. 🌈

내 일터의 '좋은 동료'는 내가 만든다!

새해 직장인들의 소망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저마다 모두 바라는 바가 다르고 도전해야 할 과제가 다르고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다르겠지만,
 드러나지 않은 채 늘 잠재된 소망 혹은 기도는 이런 것이 아닐까.
 '새해는 사람 덕분에 일하는 것이 즐겁고 사람 덕분에 일이 잘되는 해가 되었으면...'
 언제나 일이 힘든 것보다 관계가 일을 힘들게 한다.
 동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원활하게 진행되는 일이면
 힘든 일도 힘든 줄 모르고 즐거워진다.
 직장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말하지 않지만
 늘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과의 좋은 관계'에 대한 소망.
 어떻게 하면 좀 더 완벽하게 이를 수 있을까.

● 선배가 배려할 일이 더 많다

상하 관계는 쉽게 세대 간의 커뮤니케이션 문제에서 시작된다.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선배가 자신들이 걸어온 젊은 날을 기억하며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직 경험하지 못한 선배 세대의 나이에 따른 경험과 지혜의 차이를 후배 세대가 쉽게 따라잡을 도리가 없다. 다그치고 무조건 이해하고 따르라는 것은 역효과만 난다. 왜냐하면 이들 세대는 '내 말이 법'이라는 스타일에 반응하지 않거나 좀체 설득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쉽지만 권위나 직위로 무엇인가를 강요하면 이들은 쉽게 꺾이거나 이탈한다.

표정 관리

윗사람의 사소한 언행과 감정표현에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속에서 먹구름이 끼었다가 해가 떴다가 하는 사람들이 아랫사람이다. 좋은 싫든 되도록 얼굴에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이롭다. 젊은 사람들이 마음에 큰 동요를 일으키지 않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환경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선배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릴 때 가능해진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해도 상사나 선배가 긍정적인 태도와 온도차가 크지 않게 기분을 유지해야 한다.

동기부여와 보상

부모와의 친밀하고 평등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한 젊은 세대는 직장에서도 상사에게 작은 일이라도 자주 칭찬과 격려를 받는 것을 좋아한다. 어떤 일이든 혼자서 그것도 못하냐고 비난하거나 알아서 내버려두기보다 구체적인 피드백을 해주거나 제대로 동기부여를 해준다. '일일이 지시해야 하나?', '책적 알아서 좀 못해?', '딱 보면 모르겠어?' 하는 말을 싫어한다. 이들은 업무의 최종 결과뿐 아니라 과정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원한다. 무엇을 어떻게 잘했는지, 어떤 면에서 개선됐으면 하는지 구체적으로 표현해주는 것을 좋아한다.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뭐가 잘못되었는





글 전미옥

CM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전미옥 대표는 (사)한국사보협회 부회장, 한국경제신문 HICEO 기획위원을 역임했으며 KBS라디오 <황금사과-전미옥의 직장인성공학>, MBC라디오 <세상을 여는 아침-전미옥의 주식회사 나 만들기> 등 다수의 방송 진행을 맡아왔다. 현재 한국경제신문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 홍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스토리 라이팅(2014)' 외 다수의 저서를 출판했으며 대한민국 기업커뮤니케이션선대상 문화관광부 장관상(2004), 여성가족부 멘토링 장관상(2005) 등을 수상했다.

지 구체적으로 말해주거나,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질문을 통해 알려준다. 이 밖에 직원의 이름을 부르며 안부를 묻는다거나, 그 직원의 개인적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있다가 살짝 언급하며 용기나 힘을 주는 한 마디의 멘트를 잊지 않는다. 젊은 세대에게 특별한 존재로 대접받았다는 소중한 경험을 주면서 큰 동기부여와 함께 충성심을 높일 수 있다. 칭찬과 격려는 비용이 안 드는 훌륭한 보상이다.

전문성 나눔

사회적 연륜과 경험, 전문성, 인맥은 젊은 세대가 빨리 갖추고 싶어하는 부정할 수 없는 선배 세대의 재산이다. 이런 경험과 전문성을 나누어준다는 것은 후배 세대의 입장에서 수업료를 내고 들어도 좋을 대단히 좋은 산 정보이다. 후배를 기르는 일은 선배 세대의 의무이자 보람이다. 고유의 가치와 능력을 지닌 개인으로서 신세대 개개인의 성장과 경력에 관심을 갖고 지원한다면 존경과 관심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다. 그들에게 멘토가 되어주는 성숙한 선배 세대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것은 어떨까.

●● 후배는 그들의 땀과 눈물을 존중해야 한다

신입사원부터 기업의 별이라는 임원까지 직장 사회에서 선배, 혹은 상사 없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그냥 상사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싫고 불편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직장인들이 있지만, 상사도 그 자리에 오기까지 마음에 무수한 굳은살을 키워왔다. 선배, 혹은 상사이기 때문에 악역을 해야 할 일도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는 때로 충돌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존중을 깔고 신뢰를 키워가야 직장 생활이 괴롭지 않다. 상사에게도 쓴 소리는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려면

신뢰 관계가 충분히 형성되어야 한다. 뒷담화를 자제하고 면담을 통해 대화하며 업무를 통해 진정성과 성실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자기 할 일은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서 상사에 대해 불만과 분노만 갖게 되면 결국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내 목표보다 상사의 목표

상사의 목표를 보면 늘 한숨부터 나온다. '도대체 이걸 어쩌라고...' 무조건 못한다,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상사가 제시하는 목표에 대한 이의나 문제점, 방법, 궁극점 같은 세부적인 사항은 목표를 제시할 바로 그때에 대화로서 충분히 조율해야 한다. 알아 듣고 무리 없이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처럼 있다가, 나중에 이견 애초부터 무리였다거나 불가능하다, 어렵겠다 한다면 상사도 화가 난다. 물론 목표를 제시할 그때도 처음부터 어렵겠다, 무리다 하는 말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기보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지원해주고 배려해주어야 한다면 같은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업무 일정이나, 성과지표 등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는 자세를 피력한다면 대부분의 상사는 믿고 맡겨줄 것이다. 업무 외적인 갈등은 대부분 개인 성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하는 부분이 불가피하다. 상사가 혹시 불합리하게 대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시 불평 삼키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가가 상사와 대화하도록 한다. 그리고 어려운 일일수록 중간보고를 자주 하면서 상사의 피드백을 받는다.

그의 단점을 채워주는 '나'가 돼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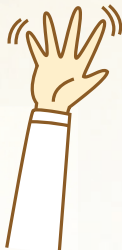
"한 번 그냥 넘어가 주는 법이 없어", "도대체 뭘 어떻게 더 잘하라는 거야?" 부하들이 보기에 상사는 늘 강해 보인다. 하지만 상사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 사실 그들도 부하에게 의지하고 싶어한다. 의지

할 수 없는 부하가 상사에겐 가장 최악이다. 가장 좋은 부하는 상사의 장점은 장점으로 돋보이게 하고 단점은 자신이 채우면서 티나지 않게 보완해주는 사람이다. 그러려면 먼저 상사의 장점, 강점, 그리고 단점을 정확히 안 후에 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나의 장점이 있다면 금상첨화지만, 그에 따라 필요한 자기 계발을 하는 것도 상사를 감동시킬 일이다. 괴팍하고 까다로운 것이 단점인 상사는 일에는 완벽주의의 가능성이 크다. 그 아래서 적극적으로 제대로 일을 배움으로써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덕분에 일은 제대로 배웠다'고 말할 수 있다면 상사의 단점은 장점으로도 보일 수 있다.

귀와 입 '따로 놀게' 하라

상식적으로 잘 통하지 않는 상사나 선배의 정말 듣기 싫은 말, 혹은 반복되는 이들의 만행 스타일이 있다면 아무리 '궁정 인간'이라도 힘들다. 이에는 '우이독경(牛耳讀經) 전법'이 필요하다. 별로 좋은 내용도 아니면서 재탕, 삼탕인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면, 일단 자기 내면의 스위치를 '소귀에 경 읽기' 모드에 켜두자. 듣는 귀와 반응해야 하는 말을 따로 놀게 하는 것이다. 다만 반드시 추임새는 해주는 것이 센스이자 매너다. 이를테면 자기 잘난 척일 땐 "아하~", "그러시구나~", "대단하시네요~" 같은 긍정적인 반응을, 잔소리일 땐 간간이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알겠습니다" 정도만 해도 좋다. 모든 커뮤니케이션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일하는 직장에서 조기 축구회 회원 같은 사이를 기대할 수 없다. 내가 먼저 좋은 상사가 되어야 부하도 그에 부응할 가능성이 크며, 내가 먼저 좋은 부하가 되어 상사의 의중을 읽어야 신뢰도 나날이 커진다. 한두 번 시도하다가 "역시 안 돼" 하지 말고, 시한을 두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관계를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다. 새해에는 조건 없이 먼저 시작해보자. 🌈

GOOD BYE 작심삼일



신년 계획만큼 지키기 어려운 것이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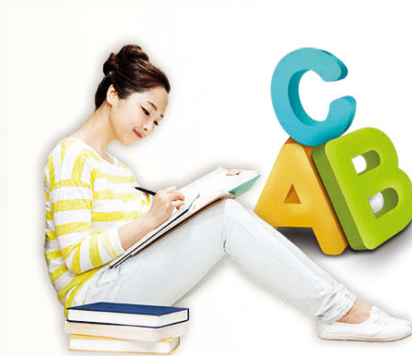
“올해는 꼭 이룬다!” 는 다짐만이 메아리처럼 떠돌고 있지는 않은가요?

2015년 새해를 맞이하며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다들 계획 하나쯤은 세웠을 테지요.

하지만 세웠던 계획이 작심삼일로 끝나버렸거나, 곧 끝날 것 같다면

다시금 흐트러진 마음을 되잡아 보는 건 어떨까요?

굿바이 작심삼일!



쉬운 목표를 설정하자

막연한 목표보다는 쉬운 목표를 설정해보자.

한두 달 바짝 하는 것 보다는 설렁설렁 1년 하는 게 더 낫다.

한 걸음씩 나아간다는 생각으로 작은 목표들을 하나씩 이뤄낸다면

2015년을 보람차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 영어공부하기

10대 때부터 꾸준히 해온 영어지만 영 늘지 않는 것이 영어다.

차라리 흥미를 붙이는 것이 좋다.

‘초급은 되겠지?, 중급은 되겠지?’ 라는 생각을 버리고 기초 회화부터 시작하자.

귀에 쏙 들어오는 영어 수업이 즐거워질 것이다.

☑ 올해는 꼭 연애하기

연애는 계획한다고 되지 않는다! 차라리 소개팅을 계획하는 것이 좋다.



일단 쓰고보자

신년 계획은 일단 쓰고 눈에 띄는 곳에 붙여두는 것이 좋다.
무형의 계획을 형상화하고, 구체화시키는 것이 굿바이 작심삼일의 핵심이다.
사무실 책상 앞도 좋고, 핸드폰 바탕화면 등 항상 보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OK!

☑ 꾸준히 운동하자

건강에 관한 신년 계획은 매년 빠짐없이 등장한다.
하지만 건강해지고자 하는 다짐은 곧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과 같기 때문에 실패 확률이 높다.
꾸준한 운동에는 흥미 유발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지겨운 헬스보다는
벨리댄스, 스피닝 등 함께할 수 있는 즐거운 운동을 선택하자.
그리고 눈에 띄는 곳에 수업 시간표를 붙여두자.
수업을 빠지지 않는 것이 곧 건강해지는 방법이니깐!



공론화하자

가족, 직장에서 신년 계획 발표 시간을 가져보자.
사람은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
망신당하고 싶지 않다면, 지키는 시늉이라도
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 자극이 되어주자!

☑ 금연, 금주

사실 금연이나 금주는 매년 적어온 신년 계획에
몇 번이나 등장했을 확률이 높다.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면
주위에 알려져 곳곳에 감시관을 두는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는 직장 동료에게 거머리 작전을 실시하자!
함께 이뤄낸다면 성취감은 2배가 될 것이다.



에디터 Tip '마지못해' 방법

'마지못해'라는 힘은 생각보다 강하다. 자신의 계획과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대회나 학원을 무작정 등록하자.
D-day가 있다는 가벼운 압박감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든다.
예를 들어 건강이 목적이라면 마라톤 대회, 스포츠댄스 대회 등을 신청해두고 대회를 목표로 운동을 하는 방법이 있다.
건강 다음으로 많이 하는 신년 계획이 자기 계발이다. 자기 계발 중 어학공부가 단연 일 순위가 아닐까 한다.
어학공부도 '마지못해' 방법을 추천한다. 일단 토플, HSK 등 어학 시험에 응시를 하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공부는 시험 등록이 반이다.

갑오(甲午)년을 뜨겁게 달궜던

성우하이텍의 10 대 뉴스는?



BMW 본사 방문 및 계약 수주 성공

BMW 본사에서 성우하이텍 서창공장, 코일센터, 금형공장을 방문했다.

멕시코 진출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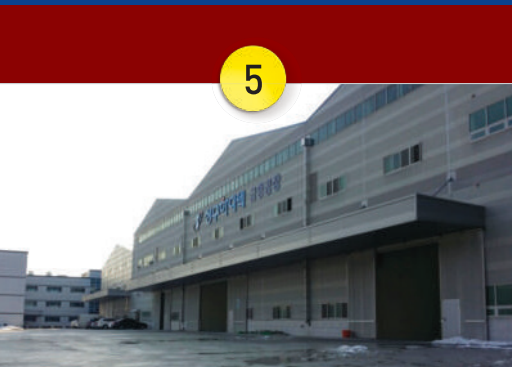
현대기아자동차가 멕시코 몬테레이시 인근 페스퀘리아 지역에 진출함에 따라 당사 또한 멕시코 진출을 확정지으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



2



5



6



7

성우몰드 합병 및 사업장 확장 이전

성우몰드는 소주공단 내 사업장을 확장 이전했고, 성우하이텍이 성우몰드를 합병했다.

R&D 우수협력사상 수상(우수신기술, 디지털차량개발)

현대기아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미래와 협력'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2014년 현대기아자동차 R&D 협력사 TECH FESTIVAL에서 두 개 부문의 'R&D 우수 협력사상'을 수상했다.

GM 올해의 GLOBAL 협력사상 6년 연속 수상

글로벌 자동차메이커인 GM으로부터 'GLOBAL 협력사상'을 6년 연속 수상했다.

‘청양(靑羊)의 해’인 2015년 을미년 새해를 맞아 지난해 12월 중 성우가족을 대상으로 ‘2014년 성우하이텍 10대 뉴스’ 선정 설문을 진행했다. 2014년은 말처럼 험하게 달리고 달렸던 한 해였다.

성우가족들은 그 어느 때보다 뜻 깊은 한 해였던 갑오년, 그 다사다난했던 기록들을 회상해 본다.

현대기아자동차 올해의 협력사상 및 기술5스타 수상

2014년 현대기아자동차 협력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이 수여하는 최고의 영예인 2013년 올해의 협력사 대상을 수상했고, 또한 2007년부터 이어 온 기술5스타 달성에 따른 인증패도 수상했다.



‘별을 쏘다’ 사보 제호 공모 및 발간

창립 37주년을 맞아 7월 31일 사보 ‘별을 쏘다(星宇) 속에 모두가 별이며, 세계를 향해 나아가자는 뜻’ 창간호를 발행했다.



2014 일터혁신 우수기업 최우수상 수상

2014년 11월 18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하는 2014 일터혁신 우수기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대기업부문)을 수상했다.



지사공장 지봉형 태양광발전소 준공

부산 과학산업단지 내 위치한 지사공장에 시간당 1,000kw급 최첨단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하고 9월 12일부터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돌입했다.



해외차종 국내 이벤트 대응을 위한 PILOT 공장 운영

해외차종 국내 이벤트의 원활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PILOT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1 2014년을 빛낸 모범상 수상자들 2 직원들에게 새해 덕담을 건네는 이명근 회장
3 이명근 회장의 신년사를 경청하는 성우가족

2015 성우하이텍

Let's go~!

1월 5일 성우하이텍은 서창공장 대강당에서 국내 및 해외 사업장을 화상시스템으로 연결한 가운데 2015년도 시무식을 개최했다. 또한 장애를 가진 직원들을 위해 수화 통역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배려와 나눔의 장을 실천하는 훈훈함을 더했다. 이날 시무식에는 2014년을 빛낸 자랑스러운 성우인상, 모범상, 우수 협력사상 시상도 함께 했다. 특히 '자랑스러운 성우인' 시상에서는 감사와 축하를 담은 수상자 가족들의 동영상도 상영되어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어 성우합창단이 모던락(Modern rock) 버전의 사가 공연을 펼치며 열정을 담은 율동과 함께 2015년을 힘차게 열었다. 또, 청양의 해를 맞아 글로벌 사업장의 소망과 각오를 담은 영상편지를 상영했다. 이후 이명근 회장의 신년사를 끝으로 시무식을 마쳤다. 공식 행사를 마치면서 이명근 회장은 전 직원들과 격려의 박수를 나누며 짧지만 따뜻한 새해 덕담을 건넸다. 을미년(乙未年) 새해맞이 성우하이텍 시무식은 따스한 온기로 가득했다. 임직원들은 올 한 해는 청양을 닮아 빠르고 진취적이며, 온순하고 평화롭게 융화하는 양처럼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며 상생해 나가는 한 해를 만들어 나가길 기원했다.

현대기아자동차 R&D 우수 협력사상 수상



10월 15일 현대기아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미래와 협력'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2014년 현대기아자동차 R&D 협력사 TECH FESTIVAL에서 두 개 부문의 'R&D 우수 협력사상'을 수상하였다. 본 Tech-Festival은 현대기아자동차의 약 40개의 1, 2차 협력사가 참가하는 행사로서 사시/차체/의장 등 부문에서 47건의 신기술이 나흘간 전시되었다. 당사는 '우수신기술'과 '디지털차량개발' 부문에서 수상했다. 특히 우수신기술로 선정된 '경량 다중소재 접합을 위한 고상 진동 접합기술'은 자체 선행연구를 통하여 개발한 세계 최초의 기술이다.

2014년 일터혁신 우수기업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대기업부문)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하는 2014 일터혁신 우수기업 경진대회에서 성우하이텍이 최우수상(대기업부문)을 수상했다. 당사는 2011년 국가품질대상 대통령상, 2012년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 2013년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본상 수상이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일터혁신을 위해 노력해온바 지금까지의 노력에 대해 타 기업과 비교·검증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본 심사에 참여했다.

직무발명보상제 우수기업 선정



당사는 10월 14일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한 2014년 직무발명포럼 및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한국과학기술관에서 진행된 직무발명 포럼 및 우수기업 시상식은 기업과 직무발명자의 상생발전을 기반으로 창조 경제의 초석인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우수 사례를 발굴, 시상하여 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을 유도하고 우수 직무발명의 창출과 신기술 개발을 통한 기업 및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다. 당사는 직무발명보상제도 정착을 위한 조직 운영 및 보상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사)한국청소년문화원 산업체 탐방 후원



(사)한국청소년문화원의 '또래와 함께하는 산업체 탐방'이 10월 18일 서창공장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투자서비스 대상 청소년들에게 대안 활동으로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토대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진로 탐색의 기회 제공과 산업체 탐방을 통한 체험의 즐거움을 느끼며 대인관계의 소중함을 심어주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행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당사에서 자동차 차체조립 과정과 자동차 부품생산 자동화 시스템을 견학하였다.

부산 자동차 부품산업 발전과 기술개발 세미나 참석



한국자동차부품소재산업기술연구조합과 부산테크노파크, 한국기계연구원 부산레이저기술지원센터 등은 11월 14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 동부산관광호텔에서 '부산 자동차 부품산업 발전과 기술개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진복 국회의원과 김영신 부산·울산중소기업청장, 성우하이텍 김태일 대표이사 사장 등 부산지역 자동차 부품업체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자동차 부품 고도화를 위한 기술 개발 협력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제2회 부산 외국인유학생 예능경연대회 후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와 부산국제교류재단이 주최한 '제2회 부산 외국인유학생 예능경연대회'가 11월 11일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다우홀에서 개최되었다. (사)재한외국인사회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재한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있다. 당사는 금번 부산 외국인 유학생들이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상호 우정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에도 동참하였다.

올해에는 한국해양대, 경성대 등 부산지역 10개 대학에서 18개 팀의 외국인 유학생이 참가해 자국의 전통 민속공연과 장기자랑을 선보였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김민석 교수의 건강강좌 개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김민석 교수의 직장인을 위한 건강강좌가 11월 12일 서창공장에서 진행되었다.

김 교수는 '장내세균과 건강'이라는 강의를 통해 '면역질환에서부터 암까지 대부분의 질환이 장내세균 부족에 의한 것으로 건강보조제보다는 통곡물과 야채·과일 등 음식을 통한 섬유질 섭취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목표설정 워크숍 진행



12월 12일~13일 국내 전 사업장의 사업부장이 참석하는 목표설정 워크숍이 있었다. 같은 달 26일~27일에는 팀장 워크숍이 진행됐다. 두 차례 워크숍에는 공통적으로 '감사나눔' 강의가 있었다. '감사나눔' 강의는 '행복나눔125'의 저자인 이명진 작가가 맡았다. 다음으로 SnC경영컨설팅 인모환 대표가 강의를 이었다. 인모환 대표는 중점추진과제와 핵심지표에 대해 올바른 지향성을 갖도록 팀 간 토론을 이끌었다. 당사는 앞으로도 훌륭한 리더를 만들고, 역량 있는 인재 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아산시 김장나눔축제’ 자원봉사 참가



아산성우하이텍 임직원은 11월 15일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아산시 김장나눔축제’에 자원봉사자로 참가하였다.

저소득가정의 월동준비를 돕고자 이틀간 3천여 명의 일반인 자원봉사자가 참여한 이번 김장나눔축제에서 아산성우하이텍 자원봉사자 일동은 농사의 어려움과 경제적으로 힘든 겨울을 준비하는 주변 이웃들을 되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2014년 4분기 공정책임자 입문과정 교육 실시



당사는 금형 및 개발직무 신입 공정책임자에게 성우문화를 전파하고 성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이며 조직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12월 1일부터 양일간 부산은행연수원에서 입문과정교육을 실시하였다. 김태일 대표이사 사장은 “회사의 사장이 아닌 인생의 선배로서 이야기를 들려주러 왔다”며 “부모님께 효도하며, 거짓말 안 하고 바른 생활을 해야 하며, 주어진 여건에 감사하고 행복을 느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금번 입문과정교육은 대표이사 특강을 비롯하여, 한국자동차산업과 성우하이텍의 역할, 사업부별 직무교육으로 구성되었다.

성우하이텍과 함께하는 겨울애(애) 희망饌(찬) 김장나눔기 개최



겨울철 웅상지역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성우가족의 사랑을 전달하고, 다문화 가정에게 김장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2월 4일 웅상노인복지회관에서 ‘성우하이텍과 함께하는 겨울애(애) 희망饌(찬) 김장나눔기’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성우가족들은 웅상나눔회 자원봉사자,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과 함께 정성스레 담긴 김장김치를 관내 독거노인과 기초수급대상자 등에 직접 전달하였고, 지난 ‘제12회 열린마음 이웃사랑 나누기 성우하이텍 일일호프’를 통해 모은 기금도 전달하였다.

3억 불 수출탑 수상



당사가 12월 9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열린 ‘2014 부산 무역의 날’ 행사에서 3억 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신규 해외시장 개척, 제품 품질개선인증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해 수출 증대에 노력한 부산지역 수출 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1999년부터 매년 열린다. 이날 아산성우하이텍도 7천만 불 수출탑을 수상했으며, 성우하이텍 김기용 부장과 아산성우하이텍 이성준 차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성우하이텍 정일석 과장과 아산성우하이텍 윤성준 과장이 부산광역시 수출유공자 표창을 수상하였다.

성우인과 함께하는 연간 캠페인!

한 감사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 감사를 말하다

우리는 스스로를 경계의 틀 속에 가둬 놓고 타인을 경계합니다.
내 안의 차갑고 메마른 시선이 타인에게 전해지면 그 타인 역시 나를 차갑고 메마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마련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너무 멀어져 버렸습니다.
따뜻한 눈길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 봅시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는 온정의 건넌입니다.
소통의 시작입니다. 여운을 남기며 변화를 부르는 말입니다.
단절을 단절시키고, 경계를 무장 해제시켜 서로를 보듬어 안게 합니다.
막힌 벽을 단숨에 헐어버리는 그 한마디를 나누어 봅시다.

‘감사나눔’을 바탕으로 하는 ‘행복나눔125’ 운동

‘Interview(28p)’를 통해 손욱 회장이 창안한
 ‘행복나눔125’ 운동에 대해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었나요?
 행복나눔125는 ‘착한 일 하기(1주 1선)’, ‘좋은 책 읽기(1월 2독)’,
 ‘감사나누기(1일 5감)’를 습관화, 생활화하여 나 자신부터 변화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행복한 가정과 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까요?
 바로 ‘나의 행복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행복을 만드는 감사나눔 실천 매뉴얼을
 ‘3333의 법칙’으로 체질화해봅시다.



‘나의 행복을 만드는 감사나눔 실천 매뉴얼

감사일기

하루에 일어난 일 중 일상의 작은 것에 감사하며, 1일 5개 이상의 감사거리를 찾아 써봅시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 놓고 쓰거나, 수첩을 활용하여 수시로 적어 봅시다.

감사미소

감사한 마음으로 미소를 띠며 ‘감사해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소중해요’를 자주 말해 봅시다.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이 웃는 행복한 미소를 지어 봅시다.

감사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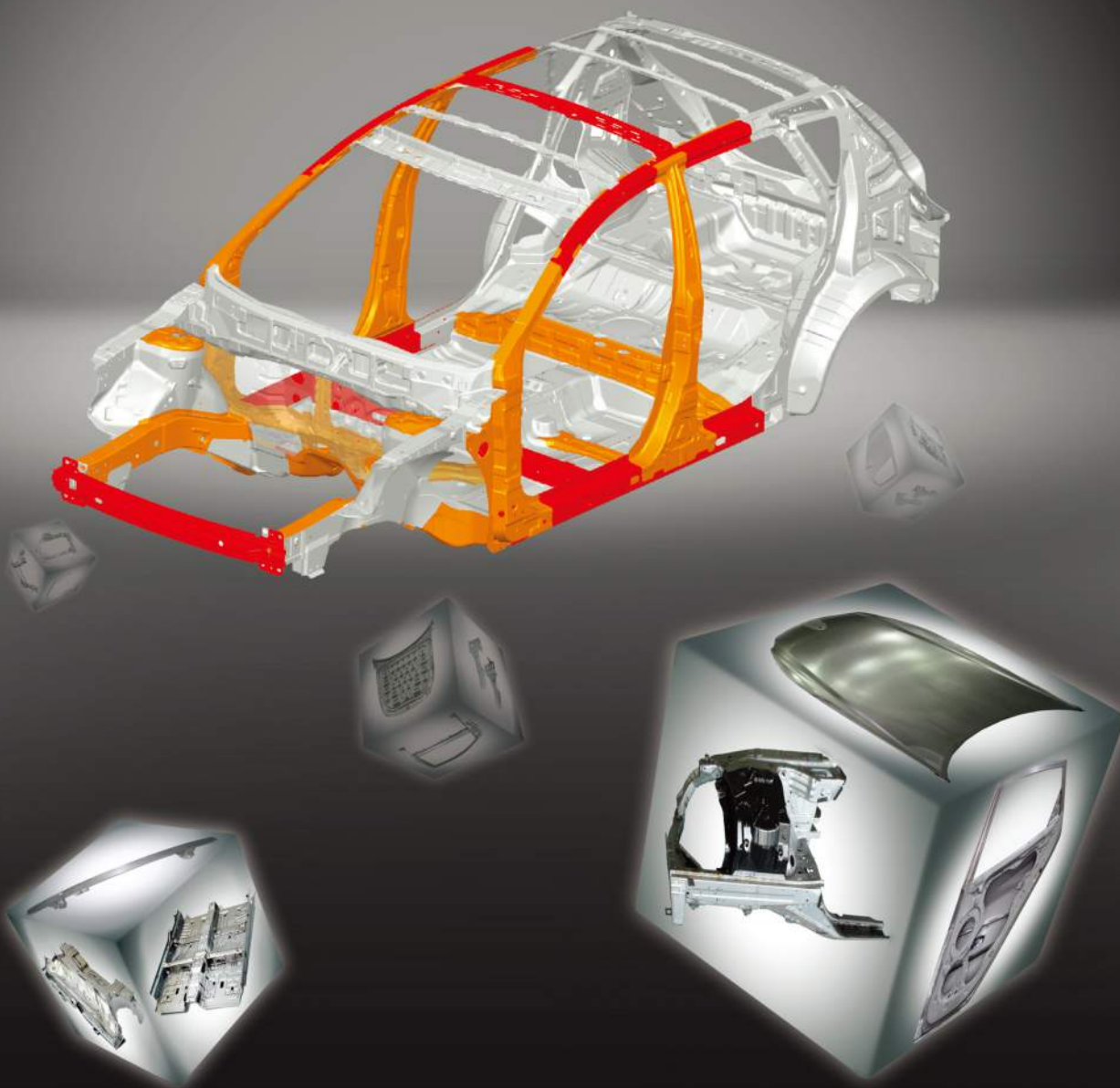
우선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사람에게, 반대로 나를 점차 힘들게 하는 대상에게, 감사의 편지를 써봅시다. 몰입하여 쓸 때는 한 사람에게 100가지(상징적 숫자) 감사쓰기를 해 봅시다. 그 대상은 어머니께 쓰는 것으로 시작하면 가장 좋습니다. 과거의 기억, 현재의 관찰, 미래의 희망을 떠올리며 써봅시다.

3333의 법칙

‘나의 행복을 만드는 감사나눔 실천 매뉴얼을 가족, 동료, 친지와 함께 시작해 작성일일의 ‘3일’을 넘깁니다. 습관의 기초가 형성되고 스스로의 변화를 감지하는 ‘3주’를 지나, 감사쓰기를 하지 않으면 어딘지 마음이 불편한 내면의 변화가 겉으로 드러나서 표정이 달라지고 행동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이른바 기적의 ‘3개월(100일)’을 꾸준히 실천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쓰고, 말하고, 나누면서 체질이 변화되는 ‘3년’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사회적으로는 문화가 되고, 개별적으로는 행복의 길을 여는 감사 체질화에 이르러 있는 나를 볼 수 있겠지요?

“The world of best in the car body part maker”
Global leading company **SUNGWOO HITECH**

First, Thinking about **People** with **Future**



SUNGWOO HITECH

Jeonggwan Factory : Jeonggwan Agricultural Industrial Complex, 2-9, Nonggong-gil, Gijang-gun, Busan, Korea / Seochang Factory : 50, Sojugongdan 3-gil, Yangsan-si, Gyeongsangnam-do
Jisa Factory : 70, Gwahaksandan-ro 333beon-gil, Gangseo-gu, Busan, Korea / Coll Center : 151, Jangansandan-ro, Jangan-eup, Gijang-gun, Busan